

3281 (3272)

北韓의 南北對話 戰略戰術 評價 및 展望

1990. 12.



康 仁 德

(極東問題研究所長)

이본영 소장
대외협력과
김영호 과장
한국의외교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本 冊子는 對話戰略開發 基礎資料로 活用하기 위하여 發刊
된 것으로 收錄된 內容은 當院의 意見을 反映한 것이 아님
을 밝혀 둡니다.

目 次

1. 序 論	3
2. 北韓의 「南朝鮮革命」의 戰略과 南北對話에 대한 認識	4
3. 對話成立의 背景과 北韓側이 기대했던 戰術目標	14
4. 各種 南北對話에서의 北韓側 주장과 戰術運用	28
가. 1970년대 南北對話에서의 北韓側 主張과 戰術	28
(1) 南北赤十字會談	29
(2) 南北調節委員會 會談	35
나. 1980년대 南北對話에서의 北韓側 主張과 戰術	59
(1) 南北體育會談	67
(2) 南北經濟會談	70
(3) 南北國會會談	79
다. 第6共和國時期 南北對話에서의 北韓側 主張과 戰術	83
5. 展 望	90

1. 序 論

本研究은 과거 20년간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던 南北對話에서 北韓側이 적용했던 政治的 原則과 이에 따라 채택했던 會議戰略의 特徵을 검토하고 향후 南北對話에서 北韓側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 戰略戰術의 基調를 예측해 보려는데 있다.

따라서 本研究은 南北對話를 北韓勞動黨이 제시한 革命戰略의 戰術的次元으로 규정하고 각종 會談에서 北韓側이 제시했던 議題와 主張의 政治的 意味를 분석하는데 焦點을 맞추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측이 제시했던 會談議題나 主張 그리고 채택했던 會談戰略에 대해서는 가급적 省略하게 될 것이다.

한편 本研究은 戰略的 觀點에서 南北對話를 照望하는 입장이므로 각종 會談의 開催背景이나 中斷, 再開의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言及을 피하게 될 것이다.

2.北韓의 「南朝鮮革命」의 戰略과 南北對話에 대한 認識

南北對話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위해서는 먼저北韓의 南朝鮮革命에 관한 理論과 이를 具現하기 위해 사용되는 戰略戰術에 대한 정확한 認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南北對話는 바로 南朝鮮革命을 위한 戰略의 戰術問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北韓이 갖고 있는 南朝鮮革命에 관한 定義와 統一問題와의 關係를 살펴 봐야 하겠다.

金日成은 「南朝鮮革命」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

《南朝鮮革命은 아직도 外來帝國主義의 예속밑에 있는 우리나라 領土의 절반과 人口의 3분의 2를 解放하기 위한 革命으로서 全朝鮮革命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¹⁾

이 말은 곧 反美·民族解放鬪爭과 反資本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동시에 전개하여 南韓의 殖民地從屬狀態와 資本家の 계급적 抑壓狀態를 끝장내는 것이 곧 統一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이 두가지 革命鬪爭을 전개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金日成은 이런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단계에서 南朝鮮革命의 기본방침은 敵들의 탄압으로부터 革命力

註1) 「金日成 저작선집」 4권, p.229.

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蓄積시킴으로써 革命의 결정적 시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²⁾

위의 指摘은 과거 30년간 계속 되풀이해 온 말이지만 南北對話가 시작되던 1970년대 초반의 情勢로 보아 당연한 말이였다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革命準備를 갖추 수 있는 것일까? 이른바 革命을 準備하는 戰略段階에서 구체적으로 채택할 鬭爭形態는 무엇인가?

그것은 남한인민대중에 대한 政治思想的 교양을 통해 反美·反政府 鬭爭 意識을 고취하고 이들을 革命의 政治的 군대로 조직해 나가는 것이었다.

革命의 準備時期에 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課題는 大衆鬭爭을 조직하는 것이다.

大衆鬭爭이란 「革命의 準備期에 있어서 人民大衆이 反革命勢力과 벌이는 攻防戰이며 동시에 階級鬭爭의 한 형태」이다.

이를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조성된 主客觀的 情勢를 과학적으로 옹계 판단하고 필요한 戰略·戰術을 전개해야 한다.

金日成의 말을 빌자면 「革命發展의 요구와 群衆의 意識水準을 잘 참작하여 그에 알맞는 鬭爭口號를 내세우고 鬭爭形態와 鬭爭方法을 옹계 선택하여 원수들의 內部矛盾과 弱點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을 능숙히 利用」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大衆鬭爭을 유발하고 이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戰

2) 上揭書 p.372.

略的 口號」와 「戰術的 口號」를 옹기 결합시켜야 한다.

이른바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 및 半合法鬭爭과 非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 작은 규모의 鬭爭과 큰 규모의 鬭爭 등 여러 가지 형태의 革命鬭爭을 배합하여 중국에는 政治的 鬭爭으로 結集시켜나가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口號가 무엇인가?

과연 혁명적 구호, 계급투쟁적 구호, 北韓支持의 口號 등으로 南韓人民이 大衆鬭爭에 동원될 수 있는가?

6.25 南侵을 경험한 南韓人民들, 共產黨의 革命理論과 戰略·戰術의 기반성을 치질한 經驗을 통해 알고 있는 南韓 國民들에게 어떤 口號가 가장 效果的인 影響을 줄 수 있을까?

勞動者, 農民, 青年學生, 知識人, 政治人, 民族資本家, 애국적 軍人 등 각계각층 人民에게 딱히 들어가면서 反美·反政府鬭爭을 유발시킬 수 있는 戰略的 口號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창출해낸 것이 이른바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의 相互關係」를 理論을 통해 새로이 정립한 통일구호이다.

1972年 7月 3日(7.4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기 하루전) 北韓의 中央放送은 金日成이 第5次黨大會에서 행한 總和報告를 해설하면서 남조선혁명과 統一問題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解說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記事는 其實 7月 1일부터 6일까지 계속된 제5기 4차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본격화된 南北當局間會談에 임하는 黨의 입장을 정립한 理論이었다.

이 解說記事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祖國統一은 어디까지나 南朝鮮革命이 수행되는 조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 南朝鮮革命은 남조선지역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조국 통일은 南北朝鮮 全地域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南朝鮮革命은 남조선 인민들을 민족적·계급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反帝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의 과제를 제기하며 祖國統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 밑에 民族解放革命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수하는 것을 自己課業으로 제기하고 있다.

… 祖國統一을 실현하는데는 平和的 방도와 非平和的 방도가 있지만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는 오직 유일하게 暴力的 方法밖에 없다. … 美帝國主義者들과 그 주구매를 때려부수고 人民이 政權을 쟁취하기 위한 南朝鮮革命은 절대로 平和的 방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革命的 폭력에 의해서만 勝利할 수 있다.

祖國統一問題는 전체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어 全國的 版圖에서 민족의 自主權을 확립하기 위한 격렬한 鬪爭을 전개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³⁾

참으로 편리한 理論이다.

南朝鮮革命 問題는 남한인민들이 南韓이라는 地域에서 수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北韓은 지원자의 입장에 있으며 따라서 책임질 성질의 것이 아니고, 祖國統一 問題는 南北韓 民族成員 전체와 관련되고 韓半島 전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統一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서 北韓側이 南韓側에 간섭하는 것은 당연한 民族의 權利로 인정해야 한

3) 조선중앙방송 청취록(1972. 7.3).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p.3.

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들의 南朝鮮革命과 統一問題와의 연관성을 논할때 사용하는 「自主성을 옹호하기 위한 鬪爭」이란 말에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政治的 意味는 南朝鮮革命을 수행하려 하든, 祖國統一을 성취하려 하든 간에 반드시 成就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人間의 自主성과 民族의 自主성을 동시에 억압하고 있는 美帝國主義와 남한의 保守的 反動勢力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問題의 차이를 든다면 그것은 담당해야 할 사람과 수행해야 할 地域이 다르다는 점이고, 共通點이 있다면 「打倒해야 할 對象」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打倒해야 할 對象의 共通性」— 美帝와 反動的 統治集團과 保守勢力 — 을 향해 鬪爭하고 있다는 데서 「南朝鮮革命의 승리는 필연적으로 祖國統一偉業의 완성을 가져오고 祖國統一을 성취한다는 것은 南朝鮮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여 全國的 革命을 완수한다」는 것이라는 結論에 도달하는 것이다.

때문에 金日成은 「統一을 위한 鬪爭은 美帝國主義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인 동시에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사이, 革命과 反革命사이의 날카로운 階級鬪爭이다」⁴⁾ 라고 辨證法的 合一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筆者는 아직도 北韓은 統一問題를 革命의 問題

4)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974. 7.31

「金日成著作選集」 제 7 권, p.84.

로 보고 이를 위한 基本路線과 戰略戰術은 변함없다고 생각한다.

90년 5월 24일 행한 제 9기 1차 最高人民會議에서의 金日成의 施政演說을 보면 아직도 그는 「社會主義가 歷史發展의 潮流이며 오직 이 길만이 人類가 나아갈 길」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가 아직도 마르크스·레닌주의思想을 포지하는 한 韓半島의 통일 문제는 「社會主義 革命의 완수」이외 다른 길이 없다는 確信을 갖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의 말대로 「前人未踏의 社會主義建設의 길인만큼 迂餘曲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길만이 人類가 지향하는 참된 善의 길이라고 믿는 한 아무리 主客觀的 情勢가 변화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南朝鮮革命의 길이 험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南朝鮮革命을 민족의 살길이라고 강변하며 변함없이 革命路線을 견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北韓이 수립한 革命의 總路線과 戰略戰術問題를 세삼 검토하고 오늘의 現實에 어떻게 適用하려 하는가를 계속 검토해가야 한다.

北韓의 革命路線과 戰略戰術의 기본방향은 1964년 2월 27일 第 4期 8次 黨中央委 全員會議에서 행한 金日成의 연설 「革命力量을 백방으로 強化할데 대하여」에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美帝國主義者들을 몰아내고 民族解放革命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革命力量이 必要합니까? 우리 혁명이 勝利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革命力量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北朝鮮의 革命力量이고 그 둘째는 南朝鮮의 革命力量이고 그 셋째는 國際的 革

명역량입니다.》⁵⁾

이 「세가지 힘」의 문제는 오늘의 南北韓狀況이나 國際情勢의 변화, 특히 蘇聯을 비롯한 모든 社會主義國家의 體制改革과 開放政策에로의 變化를 고려할때 지극히 진부한 路線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제는 「過去」의 목소리로 들리기 쉽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대로 金日成의 思考가 스탈린주의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진부한 過去の 路線으로 돌릴수 없으며 비록 현실적으로 難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깊이 뿌리박은 路線이므로 당분간, 아니 그가 죽을때까지도 修正 내지는 拋棄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가지 힘」의 노선은 南北關係改善에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障礙要因이라 할 것이다.

과거 20년동안의 南北對話過程을 보면 항상 이 革命路線問題 때문에 시작되었던 對話가 中斷, 再開를 반복하며 成果없는 대화로 始終했다고 할 것이다.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그 典型的인 예가 7·4 南北共同聲明에서 합의한 「統一 3大原則」의 恣意的 解釋과 그 利用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南朝鮮革命의 戰略戰術을 수행하는데 있어 「自主, 平和, 民族的 大團結」이라는 이 3대원칙을 최대한 利用하면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혁명의 戰略基調로 삼아왔다.

統一 3大原則의 제 1항 「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干涉을 받음

5)「金日成著作選集」, 제 4권, pp.79-80.

이 없이 自主적으로 해결한다」의 「자주」야말로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을 自主성을 위한 鬭爭이라고 규정한 그들의 論理를 正當化해 주었고 美軍撤收 주장의 정당성에 南韓側이 同意한 것으로 宣傳하였다. 제 2 항인 「相對方을 반대하는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실현해야 한다」를 이용하여 우리의 防禦的 軍事力の 增強과 韓美集團安保體제의 瓦解를 위한 理論으로 이용하였고, 제 3 항인 「思想과 理念, 制度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한다」를 이용하여 이른바 南韓의 「社會的·法律的 環境改善」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反共法, 國家保安法 심지어 反共教育, 매스컴의 신문방송보도까지도 是非하면서 反反共, 聯共合作理論으로 이용하였다.

그들은 「통일 3 대원칙」을 反美·民族解放, 反資本 人民民主主義 혁명의 概念으로 利用하면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다른 중요한 조항들—南北韓의 緊張緩和와 信賴를 축적하기 위해 南北間 交流하고 協力하는 문제, 또는 民族의 고통을 덜어주고 離散家族再會를 위한 措置의 강구, 심지어 南北韓의 軍事的 衝突을 예방하기 위한 協의의 문제토의까지도 철저히 기피하면서 오직 이 3 대원칙의 「口號化」에만 집착하였다.

北韓勞動黨이 南北對話를 철저하게 혁명적 관점에서 對應했다는 점은 金日成의 다음 글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현시기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북과 남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정당한 조국통일 방침과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금 북과 남 사이에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은 매우 심각한 계급투쟁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 사이의 투쟁이며,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투쟁이며, 애국자와 매국자사이의 투쟁이며 민주주의와 낫쏘사이의 투쟁이며, 국제혁명역량과 자본주의 연합세력사이의 투쟁입니다.…… 이 심각한 계급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가, 승리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북과 남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가 실현되면 적들은 공화국북반부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 넣으며 자본주의제도를 부활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으로 발양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켜낼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⁶⁾

위 글에서 우리는 北韓側이 7.4 南北共同聲明에서 합의한 여타항목, 특히 離散家族再會問題 해결을 기피한 理由를 명백히 알 수 있거니와 한마디로 北韓은 南北對話를 철저하게 3大革命力量의 구축이라는 革命的 觀點에서 진행시켰음을 알게 된다.

6)「金日成著作集」 제 28 권, pp.373-374,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 하기 위한 몇가지 과제”(1973.6.13)

앞으로도 계속 이런 認識하에 南北對話를 운영할 것인가의 與否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과거 20년간의 南北對話의 위치는 南朝鮮革命戰略의 戰術的 次元에 限定시킨다는 大原則에 두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3. 對話成立의 背景과 北韓側이 기대했던 戰術目標

위에서 지적한대로 1960年代 이후 北韓은 始終一貫「3大革命力量」構築을 목적으로 하는 對南戰略을 전개하였다.

그렇다면 1970年代 南北對話는 이러한 黨의 革命路線에 부합된다고 본 때문일 것이다.

과연 어떤 判斷根據하에 南北對話가 3大革命力量構築에 기여한다고 보았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方法으로 이런 目標를 성취하려 했던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解明하기 위해 1970年代 초기의 國內外情勢를 북한측이 어떻게 評價했는가를 간략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國際情勢는 한마디로 새로운 태평양의 時代로 접어들었던 시기였다.

1960년대말 美國은 越南에서의 撤軍을 결의하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1971년 中國과의 접근을 急進展시켜 72년 2월 닉슨의 中國訪問을 실현시켰다.

이로써 北方三角關係(蘇·中·北韓의 軍事同盟)가 무너지고 美·蘇間의 새로운 共存關係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情勢變化에 적응하기 위하여 朴正熙大統領은 「8·15 平和統一構想」을 발표하였다.

南北對話의 轉機를 마련하는데 이론적 기초가 된 「8·15 宣言」의 要旨는 南北韓間에 가로 놓인 인위적 障壁을 단계적으로 除去하자는 것과 南北當局은 자기 體制의 優越性만 떠들지 말고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더 잘살게 할 수 있는 體制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경쟁의 마당」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宣言을 내놓게 된 데에는 물론 越南戰의 종결과 「닉슨 독트린」으로 象徴되는 아시아정세의 變化에 대응하는 새로운 外交安保的 戰略의 수립이라는 外部作用도 있었지만 筆者는 南北間의 經濟力의 隔差가 逆轉되어 이제는 統一問題에 대한 主導權을 장악할 수 있다는 朴正熙大統領의 對北判斷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紙面關係로 일일이 당시의 南北經濟力判斷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60年代 기간중 第3共和國이 정력적으로 展開한 祖國近代化作業은 높은 經濟成長을 거두어 北韓의 經濟力을 앞설 단계로 올려세웠으며 특히 우리 국민들은 越南派兵과 經濟成長 과정에서 “하면 된다”는 自信感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政府의 政治・經濟的 지도력과 국민의 정신적 自信感의 향상에 근거하여 朴正熙大統領은 대담한 提案을 내놓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統一政策의 「이니셔티브」 장악을 위한 朴正熙大統領의 意志는 그후 1년만에 離散家族의 인간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의 提議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時點에서 南北이 지녔던 相對方에 대한 認識에 대해 留意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기술한대로 朴正熙大統領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北韓에 대한 상대적 優位를 확신하게 되었다면 北韓의 金日成은 그나름대로 北韓측의 絶對的 優位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金日成의 自信感은 南北赤十字 豫備會談이 시작되었던 1971년 9월

25일과 10월 8일 日本아사히新聞 編輯局長과 共同通信社 記者와의
會見에서 행한 그의 「談話」나 기타 문건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
다. 그는 여전히 南朝鮮革命의 可能性을 믿고 있었다.

金日成은 이들과의 對談에서 南韓情勢와 周邊情勢變化가 北韓에게 유
리하게 발전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평화적 조국통일의 기운은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속에서 뿐만 아니
라 남조선 인민들속에서도 비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매일같이 들
고일어나 투쟁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올
해 봄(1971년 4월)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이른바 「대통령선거」에서
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남조선의 야당들이 연합하여 박정희와 경쟁하였는데
신민당이 내세운 입후보(김대중씨)가 거의 박정희를 압도할 수 있
는 정도까지 이르다가 박정희의 협잡에 의하여 떨어졌습니다.

신민당이 내세운 입후보가 선거에서 이처럼 많은 지지표를 얻은 것
은 그 사람자체가 인기있는 인물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선거때 인민들이 요구하는 평화통일 구호를 들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들고나온 구호들 가운데는 몇가지 주목할만한 것이 있
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일본과만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
련, 중화인민공화국과도 관계를 가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향
토예비군」을 해체하고 정보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평화통일
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호들이 그로 하여금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⁷⁾

위 인용문에 나타난바와 같이 金日成은 남조선형세가 그들이 말하는 平和統一方向(대남전략의 방향)으로 유리하게 展開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는 「平和統一을 반대하는 자들은 오직 한줌도 못되는 南朝鮮의 反動支配層뿐」이라고 하였고 朴正熙大統領이 제시한 8·15 平和統一構想을 「統一不願宣言」으로 규정하면서 「先建設·後統一論」을 다음과 같이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막을 수 없는 힘으로 급격히 높아지자 지난해(1970년) 처음으로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이라는 것은 결코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0년후인 1970년대 말에 가서야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며 그때까지 그 무슨 「실력배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력」을 「배양」하고 그 다음 「평화통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평화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이 「실력」을 「배양」하면 어떤 「실력」을 배양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실력배양」이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혹은 군사적으로 우리보다 우세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

7)「김일성저작집」 26권, p.282.

습니다.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실력배양」에 대해서 좋게 보면 우리와 경제적 경쟁을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조선이 공화국북반부와 경제적 경쟁을 해서 이길 수는 도저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면 그동안에 우리는 낮잠을 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경제는 더 빨리 발전할 것입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평화적으로 경제적 경쟁을 한다면 우리는 남조선보다 몇배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⁸⁾

위 引用文에서 金日成은 南北對話의 初期에 얼마나 자신만만 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그는 軍事費만 줄인다면 南韓과의 經濟競爭에서 압도적으로 優勢한 經濟力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南韓側이 經濟競爭을 걸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金日成은 당시의 韓國政治에 대해서 머지않아 政治不安에 휩싸일것이므로 총제적인 體制競爭에서 상대되지 않는 존재로 보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다음 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실력」을 「배양」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도 南朝鮮과 脫北者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뻔합니다.

앞에서 말하였지만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평화통

8) 上揭書, pp.284-285.

일기운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은 평화통일이라는 말만 하여도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던 박정희 자신이 지난 「선거」때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평화통일」에 대해 운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지금 남조선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남조선에서 앞으로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빈부의 차이는 없어질수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몇몇 부자들은 더 잘살게 되겠지만 절대다수 인민들은 오늘의 가난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經濟的으로나 정치적으로 남조선이 우리와 경쟁할 형편이 못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⁹⁾

이상의 引用文에서 金日成 자신이 南韓情勢를 얼마나 알아보면서 南北對話에 임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國際情勢變化에 대해서도 상당한 自信心을 갖고 있었고 특히 美國과 中國과의 關係改善이 자신들의 對南戰略 수행에 큰 支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強調하고 있다.

《닉슨의 중국방문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외정책을 크게 변동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대외정책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외정책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은 자주적인 대외정책이며 우리는 우리대로 자기의 외교정책을 가

9) 上揭書, pp.285-286.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닉슨이 중국에 오든,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닉슨의 중국방문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승리자의 행진의 아니라 패배자의 행각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 미국간의 이번 대화가 사회주의나라와 제국주의 나라 사이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화는 아닙니다. 그전에 이런 사실은 있었습니다. ... 미국과 대화한다고 하여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원칙,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입장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나라이며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 사이에는 적대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에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 »¹⁰⁾

위 글에서 金日成의 「도그마」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金日成은 1970年代의 南北對話를 시작하면서 자신 만만한 자세로 南朝鮮革命情勢의 일대전진을 期約할 수 있다는 樂觀的 立場에 서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 에다 우리측 代表와의 秘密會談에서 金日成은 더욱 확고한 自信感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自信感을 갖게된 것은 1972년 5월 3일 李厚洛 중앙정보부장과의 秘密面談에서 자신이 제기한 統一 3大原則이 거의 먹혀들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10) 上揭書, p. 308.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談話(李厚洛씨와의 면담)에서 북과 남사이의 중요한 共通點을 찾았으며 가장 原則的인 問題에 대하여 合意를 보았습니다.

外勢의 간섭이 없이 自主的으로 통일을 실현하여 思想과 理念, 制度의 차이를 초월하여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하며 갈라진 祖國을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할데 대한 세가지 原則은 우리 祖國의 統一問題를 해결하는 데서 出發點으로, 기초로 됩니다.

이 세가지 原則에 기초하여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하자는데 대하여 당신도 贊成하고 또 남조선 最高當局者(朴正熙大統領)도 찬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祖國統一 3大原則에 대하여 완전한 合意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談話를 통하여 북과 남사이에 祖國統一의 3大原則에 대하여 완전한 合意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이 3대원칙을 기초로 삼고 나가겠다고 맹세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統一問題 解決에서 나서는 다른 문제들도 成果的으로 풀 수 있으며 우리 民族의 統一을 빨리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¹¹⁾

金日成의 당시의 心情은 統一 3大原則만 合意하고 公布할수 있다면 자신들이 企圖해 온 對南戰略의 전진을 담보할 수 있는 環境이 造

11)「金日成著作集」 27 권, pp.177-178.

成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말하며 이 3대 원칙의 合意文書 이상 金日成의 對南戰略遂行에 유리한 位置를 提供해준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反美運動의 명분으로, 反政府鬭爭의 口號로 이 3大原則以上 有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건이 또 어디 있었겠는가?

60年代 全期間를 南韓內에서 統一戰線形成에 주력한 北韓勞動黨이지만 아직까지 그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企圖를 분명히 알고 단호한 拒否態度를 보인 南韓政權의 反共決意와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 의식 때문이었다.

「統一3大原則」은 바로 統一問題를 가지고 統一戰線形成을 공개적으로 煽動할 수 있는 條件을 金日成에게 안겨준 결과로 되었다.

金日成은 機會있을 때마다 3大革命力量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戰術은 統一戰線임을 강조해 왔다.

그가 얼마나 統一戰線形成을 重視하였는가는 1964년 2월에 개최되었던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행한 演說에서 각계각층 軍중들을 統一戰線에 묶어 세워야 하며 이것이 革命戰略 추진의 가장 중요한 課題임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強調한데서도 충분히 알수가 있다.

《統一戰線事業을 잘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을 잘하면 첫째로 革命의 主力軍을 키우는데 아주 유리한 條件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광범한 群衆을 統一戰線에 묶어 세워야 反革命勢力을 더욱 孤立化시키고 革命의 主力軍에 대한 敵의 공격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革命力量을 保護하고 끊임없이 擴大・強化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革命의 主力軍을 보조할 수 있는 힘있는 部隊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各계各층 群衆은 革命의 主力軍으로 될 수 없으나 勞動者・農民과 힘을 합할 때에는 敵에게 큰 打擊을 줄 수 있는 중요한 補助力量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革命의 主力軍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各계各층 群衆을 革命의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統一戰線事業을 잘 해야 합니다.

統一戰線에는 上層統一戰線과 下層統一戰線의 두가지 形態가 있습니다.

革命力量을 強化하는데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群衆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下層統一戰線을 강화하는 것을 基本으로 삼아야 합니다. ……

그러나 上層統一戰線을 위해서도 진지하게 努力해야 합니다.

支配階級 政黨안에 있는 일부 進步的 人士들이나 中間黨들의 上層部와의 統一戰線은 下層統一戰線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며 統一戰線事業에서 우리의 基本方針은 혁명의 主力軍의 指導的 役割을 끊임없이 높이는 條件에서 各계各층 群衆을 쟁취하기 위한 統一戰線을 강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上層統一戰線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¹²⁾

金日成의 이 말은 지금까지 北韓勞動黨이 對南戰略에서 일관되게 적용한 基本戰術이 바로 統一戰線形成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12) 「金日成著作選集」 4권, p.92.

統一戰線, 反美救國統一戰線, 反政府民主主義 統一戰線 등 허다한 名稱의 統一戰線을 형성하려 시도하였다.

특히 南北對話가 시작되기 1년전에 개최되었던 第5次黨大會(1970년 11월 2일)에서 행한 金日成의 中央委員會 事業總和報告는 休戰以後 南韓에서 일어났던 주요정치사건 - 進歩黨事件, 4·19 때의 학생들 주장, 社會大衆黨, 統一革命黨, 韓日會談 反對鬭爭, 1967~68년의 大統領과 國會議員選舉 등 - 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革命的 參謀部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黨」의 창설이 革命發展의 最大課業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 「反帝·反搾朶民主化의 기치 밑에 모든 愛國的 政黨·社會團體와 各界各層 軍중들과 個別的 人士를 망라하는 反美救國統一戰線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¹³⁾고 강조하고 있다.

統一3大原則의 合意는 바로 統一을 名分으로 하는 反美·反政府統一戰線 形成의 중요한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統一問題가 主議題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南北對話에서 제의되는 北韓側 제안의 論理的 構成만 제대로 잡는다면 많은 南韓國民에게 共感帶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는 판단하였다.

누가 과연 統一을 원하고 누가 反對하는가? 分裂主義者는 누구이고 統一主義者는 누구인가? 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南北對話는 조성해주는 것이다.

13) 「金日成著作選集」 제 5권, pp.479-491, “Ⅲ.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이런 의미에서 金日成은 南北對話를 이용하여 南韓內 親北統一戰線, 反美統一戰線, 反政府統一戰線 등을 형성하는 任務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우리측이 南北赤十字會談을 제의하자 선뜻 응하고, 이를 계기로 政治合作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다.

金日成은 南北間의 協商과 對話의 基本原則을 「 통일문제에 대한 협상과 대화의 폭을 넓이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나라의 統一問題를 우리 人民의 意思와 要求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광범한 各界各層 人민들이 祖國統一을 위한 거족적인 愛國事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祖國統一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對話는 북과 남의 當局者들의 범위에서만 그쳐서는 안되며 全民族的인 범위에서 進行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北半部의 勞動者·農民, 근로인테리, 青年學生, 兵士들과 남조선의 勞動者·農民, 青年學生, 知識人, 軍人, 民族資本家, 小資產階級과 같은 북과 남의 各계各층 人민들과 各 政黨·社會團體 代表들로 구성되는 大民族會議를 소집하고 여기에서 나라의 統一問題를 광범위 協議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¹⁴⁾

남북간 對話의 폭을 넓힌다, 남북의 各계各층의 政黨·社會團體 개별적 人士가 참가하는 大民族會議를 소집하여 統一問題를 논의해야 한다는 金日成의 주장은 한마디로 南北協商會議의 매력을 제시하면서 남

14) 「金日成著作選集」 6권, “조국통일 5대 방침에 대하여”(1973.6.23) p. 252.

한내의 統一論議를 확산시키면서 統一問題를 芻藁하여 대립되는 思想과 組織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統一戰線形成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처럼 北韓側의 企圖는 對話初期부터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다.

大韓民國政府를 外勢依存的 정책과 民族分裂永久化 策동을 계속하는 反統一集團으로 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는 勢力은 모두 反美·反政府統一戰線에 걸집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反美·反政府 鬭爭을 統一問題로 僞裝하겠다는 것이며 그 手段으로 南北對話를 시작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僞裝(明分)을 造作하기 위해서 모든 對話에서 統一을 위한 對話냐, 아니냐라는 兩分論理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對話를 政治的 對話로 이끌어가려 하였다.

金日成이 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이 시작된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는 것은 그들의 南北對話에 임한 이유가 統一戰線形成에 있었음을 더욱 명백히 보여준다.

《나라의 統一問題는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와 같은 제한된 범위의 接觸과 協商만으로는 원만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統一을 실현하는데는 南北赤十字會談이나 南北調節委員會의 기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根本問題들을 해결하려면 더욱 폭넓고 다방면적인 接觸과 協商을 실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南北間의 不信과 誤解를 풀고 理解를 증진시키며 自主的 平和統一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 方策들을 토의하여야

합니다.》¹⁵⁾

위 주장에서 北韓側의 南北對話가 처음부터 담당해야 할 役割은 「全民族的 對話」라는 이름의 統一戰線 形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를 위해 南北對話는 시작되었고 中斷되고 再開되는 과정을 밝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15) 上揭書,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중 「3. 조선의 평화적 통일문제에 대하여」, p. 161.

4. 각종 南北對話에서의 北韓側 主張과 戰術運用

위에서 南北對話에 임하는 北韓側의 태도는 本質上 南朝鮮革命을 위한 大衆鬪爭의 조직과 이른바 革命力량의 배양(政治的 軍隊의 조직)을 위한 戰略的 口號를 창출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換言하면 反美·反政府統一戰線 形成을 위한 戰術形態가 곧 南北對話였다.

때문에 北韓勞動黨은 南北對話를 기히 결정했던 南朝鮮革命을 위한 戰略方針에 근거하여 전개하였다.

그들은 모든 형태의 南北對話를 政治的 合作을 위한 對話로, 當局(政府)을 孤立化시키는 對話로 「하나의 조선」을 인정하게 하는 對話로 南韓內 統一戰線形成에 도움이 되는 對話로 이끌어 갔다.

만약 南北對話가 南韓政府의 立場을 강화하고 이른바 「두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對話로 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中斷시켰다.

換言하면 그들은 南北對話를 「조국통일과 朝鮮革命의 全國的 勝利」를 보장하는 「3大 革命力량의 축적」이라는 혁명준비단계의 戰略的 要求를 구현시킨다는 基本原則하에 전개시켰다.

그렇다면 이어 이러한 原則이 각종 회담에서 어떻게 제시되었는가를 北韓側 主張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1970년대 南北對話에서의 北韓側 主張과 戰術

1971년 8월 우리측이 제의한 南北赤十字會談을 北韓側이 받아들

임으로써 시작된 1970년대의 간헐적인 南北對話는 크게 보아 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會談을 중심으로하여 北韓의 主張과 戰術的인 目標을 규명해 보자.

(1) 南北赤十字會談

1981년 8월 12일 大韓赤十字社의 崔斗善總裁 명의의 離散家族 찾기 運動을 위한 南北赤十字代表會談 제의가 발표되자 이틀후인 8월 14일 北韓側의 受諾回答이 나온후 豫備會談을 거쳐 本會談 議題가 합의된 것은 1972년 6월 26일 板門店에서 소집된 第20차 豫備會談이었다. 무려 10개월의 時間이 지나서야 비로소 5個議題에 合意를 본 것이다.

離散家族 찾기운동은 非政治的 人道的 활동을 임무로 하는 南北赤十字社로서는 주저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합의된 5개의제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자유로운 相逢을 실현하는 問題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사이의 자유로운 書信去來를 실시하는 問題 ④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問題 ⑤ 기타 人道的으로 解決할 문제는 전혀 論爭의 對象이 될수 없는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議題를 合意하는데만도 10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당초부터 赤十字會談에 임하는 北韓側의 목적이 다른데 있었기 때문이다.

赤十字會談에 대한 北韓側 태도는 金日成의 다음 글에서 명백히 드러

리라고 있다.

《南北赤十字會談 때 南朝鮮에서 들어온 代表들 가운데 北半部に 친척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군들이 그에게 당신의 親戚이 여기에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는가 고 했더니 후에 만나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만나지 않겠다고 하더랍니다.

지금 南朝鮮에는 北半部に 있는 親戚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고 北半部に 親戚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형편에서 南北赤十字 단체들의 힘만으로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들을 제대로 찾아줄 수도 없고 서로 자유롭게 만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을 찾는 問題가 원만히 풀리자면 반드시 남북사이의 政治的 合作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¹⁶⁾

이 말은 南北赤十字會談 第3次本會談이 平壤에서 개최된 직후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 共同委員長會議이 平壤에서 개최되었던 1972년 11월 3일 우리측 代表團과 만났을때 한 金日成의 말이다.

金日成의 말대로 南北의 離散家族들이 서로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말은 그의 일방적 說明일 뿐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大韓赤十字社는 수많은 離散家族으로부터 家族을 찾아달라는 申請書를 접수하고 있었다.

16) 「金日成著作集」 27 권, p.189.

金日成이 지칭한 赤十字會談의 어떤 「南韓側 代表」란 다른 사람이 아닌 李範錫 首席代表였다. 李代表는 金日成의 말대로 지금 만나지 않고 후에 만나겠다고 말하였다. 왜 이런 말을 그가 했는가? 그는 바로 離散家族찾기 事業을 논의하기 위해 南韓代表로 북한에 갔던 張本人으로서 아직 아무런 合意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平壤에 왔으니 내 가족부터 만나겠다고 한다면 이야말로 離散家族을 배신한 犯罪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本人이 筆者에게 한 말임.)

제 3차 南北赤十字會談에서 北韓側 대표의 주장은 「政治合作이 이루어져야 離散家族問題도 해결할 수 있다」는 金日成의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北韓側 首席代表인 金泰禧는 말하기를 「南北離散家族이 헤어진 혈육을 찾는 문제는 人道主義問題지만 이것은 곧 祖國統一이라는 民族問題가 해결됨으로써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잘라 말하고 「議題討議의 5개 基本原則」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그 要旨는 ① 主體的 立場의 철저한 견지 ② 民主主義 및 自由主義原則의 관철 ③ 相互理解, 和睦, 大團結原則의 견지, ④ 赤十字人道主義原則의 철저한 具現 ⑤ 舉族的 人民的 事業推進 原則이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런 구차한 討議原則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이미 南北赤十字會談 과는 아무관계도 없는 이른바 「各 政黨·社會團體」代表로 구성되는 8명의 「諮問委員會」이 赤十字會談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 「5개 議題討議 基本原則」외에도 北韓側 대표는 離散家族들이

南北을 오고가며 헤어진 血肉을 만나기 위해서는 「南北來往을 위한 社會的 法律的 環境을 造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南朝鮮의 反共活動, 反共教育, 反共宣傳 등 反共政策을 폐지해야 하며 이러한 環境조성이 先決되지 않는 한 實質問題 討議는 不可能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태도는 1972년 9월12일 第2次南北赤十字會談이 서울에서 열렸을 때 이미 示唆된바 있었다.

이때 「統一問題와 南北赤十字會談間의 關係」에 대한 兩側代表의 意見이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리측 李範錫首席代表는 「이 세상에서 단 한곳만이 住所를 적고 우표를 붙여도 便紙가 배달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 나라의 南北사이에 障壁」이라고 지적하고, 때문에 「南北赤十字人들의 서울—平壤 往來는 그것이 곧 남북간의 障壁을 허무는 것이 되어야 하며 南北赤十字人들의 相互信賴와 성실한 努力으로 赤十字會談의 契도가 순탄하게 이어져 간다면 이 契도는 언젠가는 祖國統一을 위한 다음 단계의 歷史的 과업의 契도로 연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우리측 諮問委員을 대표하여 金玉吉 梨大總長은 「理念과 制度가 있기에 앞서 겨레가 있고 이 겨레는 父母와 兄弟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歷史의 方向을 돌이킬 個人도 團體도 없으므로 우리는 다같이 이 겨레에 奉仕하려는 精神과 精誠만으로 民族의 至上命命에 따라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우리측 代表들의 주장은 人道的 問題인 離散家族찾기는 政治的 問題에 종속될 수 없으니 分離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北韓側은 철저한 政治合作의 한 形態로 赤十字會談을 규정하였다.

北側 代表團長인 金泰禧는 開會演說에서 「祖國統一이야말로 최고의 人道主義이며 분열로 인한 겨레의 고통을 가장 완전하게 풀어주는 것」이라 주장하여 赤十字會談 代表團長의 입장을 떠난듯 赤十字會談은 아예 제쳐놓고 당장 統一問題로 뛰어들자고 발언하는가 하면 首席諮問委員으로 참가한 北韓勞動黨 代表 尹基福은 祝賀演說에서 赤十字會談 成功을 기원하는 언급조차 피하면서 「영광스러운 民族의 首都 평양」 운운하는가 하면 「우리 民族의 경애하는 首領 金日成」운운하는 政治宣傳으로 일관했다.

이쯤되면 北韓이 赤十字會談에 응한 理由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들의 南北赤十字會談의 戰略은 政治合作을 실현하기 위한 南韓內 「法律的 社會的 條件과 環境改善」을 위한 政治宣傳揚化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北韓側 태도는 1972년 11월 22일에 개최된 第4次南北赤十字會談에서 보다 명백하게 再現되었다.

이 會談에서 우리측은 「赤十字基本精神에 입각한 離散家族찾기 事業의 추진을 강조하며 人道的 中立性에 근거한 단계적인 사업의 추진, 赤十字團體의 책임과 離散家族찾기 사업의 주관, 赤十字國際會議에서 채택한 제반 決議文과 그 慣例의 존중을 주장하며 法律的 社會的 體制와 赤十字運動을 관련시키려 하는 북측의 政治的 企圖를 不許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주장은 더욱 더 政治的 合作을 위한 赤十字會談의 役割을 강조하며 離散家族의 住所確認과 生死確認 사업의 先決條件으로 南의 法律(國家保安法)과 社會的 장애(反共教育, 反共言論)의 除去를 강조하면서 離散家族 사업에 새로운 障礙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7월 11일 개최된 第7次南北赤十字會談에서 우리측은 議題第1項 문제만이라도 解決하자고 제의하면서, 만약 이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면 「秋夕省墓團」만이라도 교류할 것을 提議하였다.

이에 대한 北韓側의 답변은 過去보다 더욱 명백한 政治問題의 선차적 解決을 제시했다.

北韓側이 제시한 주장은 「...省墓訪問團 문제는 法律的 社會的 環境造成이 실현된 후에 議題順序에 따라 토의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共同聲明의 발표」를 제시하였다.

- ① 南韓의 現行 反共法規의 철폐
- ② 反共活動의 금지와 反共團體의 해체
- ③ 事業參加者에 대한 人身 및 所持品の 불가침, 言論・出版・集會・通行 등 活動의 自由와 便宜保障
- ④ 현 軍事的 對峙와 緊張狀態 解消를 위한 積極的 措置의 강구
- ⑤ 이상 조항들을 當局이 法的・行政的으로 조치하고 이를 内外에 宣布할 것.

이 쫓되면 더이상 南北赤十字會談의 지속은 不可能하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1973년 8월 28일 北韓側의 일방적인 會談中斷 宣言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것이다.

1984년 9월 北韓側의 水災物資提供 제의를 우리측이 수락하고 이

것이 계기가 되어 1985년 5월 28일 서울에서 第8次南北赤十字會談이 재개되어 同年 9월 20일 南北離散家族의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流」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종래 취했던 赤十字會談에 대한 北韓側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赤十字會談에서 분명히 나타난 北韓의 戰略은 「南北政治協商會議」(大民族會議)를 위한 統一戰線形成을 위해 이 회담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른바 「法律的 社會的 環境條件의 改善」을 주장하며 남한의 「革命力量」의 축적을 기린다는 政治優先主義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自由往來」를 名分으로 우리측의 法律과 社會環境을 변화시켜 容共, 또는 聯共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基本戰略에 따라 會議를 지속하다가 維新體制로의 이행으로 이것이 不可能함을 알게되자 더이상 會談進展을 기피하여 드디어 一方的 中斷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이다.

(2) 南北調節委員會 會談

南北對話에서 가장 중요한 對話는 역시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이었다.

1972년 南北間에 合意한 「7·4 南北共同聲明」은 分斷祖國을 통일하는데 있어 南北이 지켜야 할 基本原則을 명시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統一로 가는 過程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까지 包括 解決할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北韓側이 이 聲明에서 기도했던 戰略的 目的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金日成과 李厚洛중앙정보부장간에 주고 받았던 對話이다.

1972년 5월 2일~5일까지 平壤을 방문했던 李厚洛部長은 5월 3일 金日成과 만나 統一問題에 대한 그의 見解를 들은바 있었다.

그는 對話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南朝鮮當局이 북과 남사이의 政治會談에 참가할 決心을 가지고 당신을 代表로 파견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지난해 1971년 8월 6일 한 演說에서 南朝鮮의 民主共和黨을 포함한 모든 政黨·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과 아무때나 接觸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내가 연설한 다음 몇일 지나서 南朝鮮側이 南北赤十字團體들 사이에 會談을 하자고 응해나섬으로써 南北赤十字團體들 사이의 豫備會談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실마리로 하여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 政治會談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¹⁷⁾

위 金日成의 말은 南北赤十字會談에 대한 北韓側 인식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7·4 南北共同聲明」과 이를 근거로 시작된 南北調節委員會의 성격에 대한 北韓側의 認識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南北間의 모든 對話는 「政治的 對話」이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當局間 對話로 一元化될 것이 아니라 각 政黨·社會團體, 심지어 個別的 人士간의 對話도 할 수 있는 「多元的 對話」이어야 한

17) 上揭書, p. 163.

다는 것이다.

결국 南北間에 처음 시작된 南北調節委員會를 자신이 제의한 南北의 모든 政黨·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間的 對話의 한 形態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南北 高位級政治會談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祖國을 統一하기 위해서는 統一問題 해결의 基礎로 될 수 있는 根本原則을 옳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쌍방이 合意하여 세운 根本原則이 있어야 북과 남이 祖國統一을 위하여 共同으로 노력할 수 있으며 祖國을 統一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問題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¹⁸⁾

위 글에서 보는바와 같이 金日成은 多元的인 對話에 적용되는 原則, 즉 統一의 基本原則을 合意하지는 것이었다.

南北當局間的 對話를 一元化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諸政黨·社會團體 그리고 個別的 인사간의 對話·接觸·協商에서 적용되어야 할 統一의 基本原則을 합의하고 모든 對話가 이 原則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原則이란 위에서 기술한바 있는 對南戰略을 염두에 둔 原則이었다.

이 會談에서 金日成은 「自主·民族大團結·平和」의 3大原則을 제시하며 각 原則에 대해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18) 上揭書, p.165.

첫째로, 祖國統一은 外勢에 의존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적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그어떤 外部勢力도 朝鮮의 內部問題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外勢의 간섭 밑에서는 祖國統一問題를 우리 민족의 念願과 利益에 맞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南朝鮮當局도 外勢의 干涉을 반대하며 美國과 日本을 끌어들이지 않고 나라의 統一問題를 自主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맹세하였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둘째로 思想과 理念, 制度의 차이를 초월하여 民族의 大團結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統一問題는 누가 누구에게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朝鮮의 統一問題는 外勢에 의하여 갈라진 民族의 團합을 이룩하고 民族의 自主權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祖國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북과 남사이의 團합을 이룩하고 民族의 大團結을 도모하겠는가 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民族의 大團結을 도모하려면 북과 남이 자기의 思想과 制度를 초월하여야 하며 서로 相對方을 敵對視하는 政策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思想과 制度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條件에서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思想과 制度를 상대방에게 強要하려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社會主義制度와 共產主義 思想을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南朝鮮當局者들도 「勝共統一」을 하겠다고 하거나 共產主義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反共」의 口號는 버려야 됩니다. …

南朝鮮當局者들이 말하는 「自助」, 「自立」, 「自衛」는 우리 黨과 共和國政府의 自主的인 政策과 공통되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民族의 大團結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에 誤解와 不信任을 없애는 것입니다. …

民族의 大團結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북과 남이 서로 相對方을 誹謗・中傷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民族의 大團結을 이룩하는데서 북과 남사이의 經濟的 合作을 실현하는 問題도 매우 중요합니다.

共和國北半部에는 풍부한 資源이 있고 발전된 重工業이 있습니다. 남조선은 그전부터 輕工業土臺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經濟的으로 合作하고 有無相通하면 다른 나라의 資本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民族經濟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습니다. …

對外關係分野에서도 북과 남이 共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民族의 團結을 시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南朝鮮에 있는 民族主義者들과 資本家들을 反對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자본가들은 거의다 民族資本家들입니다. … 우리는 나라의 統一을 위하여 民族主義者들과 民族資本家들을 포함한 남조선의 各界各層과 團結하고 合作하여 나갈 것입니다. …

셋째로 祖國統一은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실현하여야 합니다. …

祖國統一이 平和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또다시 戰爭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큰 災難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世界의 列強들도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려하고 있습니다.

닉슨의 中國訪問 결과로 발표된 中國과 美國사이의 共同컴뮤니케를 보면 美國은 이때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던 平和 5個原則을 승인하였습니다.

우리의 勞動新聞은 닉슨의 中國行脚을 論評하면서 닉슨이 萬里長城을 돌아보고 한 말이 진심이라면 무엇때문에 우리나라의 한복판에 만들어 놓은 軍事分界線을 없애려 하지 않으며 「MP」라고 쓴 쇠바가지를 쓰고 거들먹거리는 美國兵士들을 걷어가려 하지 않는가고 썼습니다. 나는 이 論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사이에 싸움을 하지 않고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려면 무엇보다도 북과 남이 가지고 있는 軍隊를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북과 남이 잘 협의하여 서로 武力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고 그것을 實踐에 옮기면 軍事分界線 일대에 있는 쌍방의 軍事施設과 軍事人員들이 필요없게 될 것이며 軍事分界線 자체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3大原則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이번에 북과 남의 高位級代表들이 직접 만나서 會談을 진행함으로써 「政治協商」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북과 남의 政治協商이 시작된 것만큼 앞으로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훌륭한 열매

를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¹⁹⁾

위에서 인용한 金日成의 말은 당시 李厚洛部長과 만났던(두차례) 對話를 정직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예를 들면 「1·21 사태」에 대한 公式謝過, 金日成의 「政治協商」에 대해 李部長은 「政治的 會談」이라고 못박은 사실, 金日成의 말에서 自主, 民族의 大團結, 平和」등의 統一3大原則을 명백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統一政策에 대한 그의 말은 그가 종래에 주장했던 內容들을 되풀이 주장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후 發表된 「7·4 南北共同聲明」은 사실상 우리측이 金日成의 주장에 同意했다는 北韓側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金日成의 글과 「7·4 南北共同聲明」을 비교해 보면 統一3大原則에서 「自主, 民族의 大團結, 平和」의 順序가 「自主, 平和, 民族의 大團結」의 表記順序로 바뀐것 뿐이다.

이렇게 볼때 「7·4 南北共同聲明」의 발표는 金日成으로 하여금 쾌재를 부를만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은 자신이 누누이 강조했던 駐韓美軍撤收와 남북문제를 政治協商을 통해 解決하자는데 우리측이 同意함으로써 統一問題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南韓에서의 統一戰線 形成의 「共同綱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것이 확실하다. 때문에 金日成은 臥病으로 職務不可能한 金英柱(黨中央委 조직지도부

19) 上揭書 pp.170-179.

장·金日成의 親弟) 대신 朴成哲(第2副首相)을 李部長의 相對役으로 바꾸면서도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자신과의 對話에서 李部長이 同意한 內容들이 文書化되는데 妨害가 되지나 않을까 하여 金英柱를 그 대로 北側代表로 任命하기 까지 하였다.²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당시 金日成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기도하는 對南戰略에 부합한 文書를 만들고 이것을 미끼로 하여 對南戰略의 戰術的 進展을 기하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

李厚洛部長의 北韓 秘密訪問이 있는지 20 여일만인 5월 29일~6월 1일까지 朴成哲의 서울 秘密訪問으로 다시 한번 兩側의 高位當局代表間의 會談이 있었다.

1972년 5월 29일 개최된 會談에서 양측의 態度는 크게 차이 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李部長의 주장은 「...상당한 부단에 있어서 目標은 같으나 方法論에

20) 당시 金日成은 金英柱를 계속 李厚洛部長의 공식적인 相對役으로 하겠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敵對視政策을 쓰지 않으니깐 단절을 위해서 나간다, 이것을 朴大統領께 보고하시고 나도 朴成哲同志를 보내겠으니 秘密을 지켜 주십시오.

連繫는 어떻게 하느냐, 組織部長이 아파도 내가 시켰지요. 組織部長은 사업에서 2-3년 손을 떼었지요. 李部長이 組織部長을 지명했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단절되니까,..... 그래서 組織指導部長과의 연락은 가져놓고 組織部長 못지 않게 신임하는 朴成哲同志를 朴大統領께서 만나면 우리가 舊面이 되는 것이지요.》

中央情報部 編, 「南北對話史料集」 南北調節委員會編 (1971~1977), p.115.

있어서 見解差異가 있다」고 지적하고 「…武力으로 統一해야 된다고 하는 極烈勢力을 어느 정도 무마해가면서 平和的인 統一方案을 관철해야 하며 ……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方法을 상호 研究하고 좋은 平和的인 統一方案을 모색하여 이 길을 꼭 걸어야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朴成哲은 合意文을 채택하고 이를 公表할 것이며 政治 協商機構로서 南北調節委員會를 발족시키자고 하였고 심지어 首腦會談 開催를 제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전번 平壤會談에서 그쪽에서는 外勢에 의존할 생각이 없고 절대로 對美·對日關係에서 自主性を 잃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였고 우리도 애당초 南侵할 意思가 없고 우리 制度를 남조선에 강요할 意思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지금와서는 南北間에 존재했던 誤解와 不信도 根本點에서는 이미 풀렸다. ……」

또 合意에 의하여 平壤~서울간에 直通電話도 설치되고 이것을 통해서 아무때나 意思疏通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저러한 不祥事에 제 때에 대처할수도 있게 되었다. …… 그러니 우리 의견으로서는 앞으로 이 會談을 정상적으로 계속하기 위하여 常設的인 協議機構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平壤에서 합의한대로 調節委員會, 혹은 民族統一 共同委員會와 같은 것을 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委員會는 金英柱部長과 李厚洛部長을 쌍방 委員長으로 하고 3~5명의 委員을 임명하고 政治軍事問題 전반에 대해 協議·決定하고 그 執行을 조절하는 機能을 수행토록 하자.

그러나 調節委員會에서 모든 分野의 문제를 다 討議한다면 도리어

복잡할 수 있고 또 取扱하기에 적당치 못한 問題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協議할 機構로 高位級 經濟・文化交流 協議委員會를 내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協議委員會에서는 예를 들면 藝術人・體育人・科學者들의 交流問題, 企業家・商人들의 내왕문제 등을 협의하고 行政措置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協議委員會안에는 필요하다면 各 部分別로 몇개의 分科委員會도 둘 수 있다. ……

우리 앞에 제기된 복잡한 事業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가자면 首腦級 會談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

또한 李厚洛部長先生의 平壤訪問과 우리의 서울訪問結果를 발표하도록 하자」²¹⁾

위 朴成哲의 발언에서 北韓側이 남북간의 對話推進을 얼마나 서둘러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北韓側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우리측은 國民에 대한 教育期間의 필요, 서두는 것이 오히려 極烈分子들의 방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態度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도 일단 北韓側 제안을 받아 들였다.

調節委員會에 대한 北韓側의 이러한 主張에 대하여 우리측은 政治・軍事會談 중심기구로 만들지 말고 南北問題改善을 위한 諸般 사업을 담당하는 機構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南北問題改善과 해결을 위한 產婆的 役割」에 한정하고 公式決定의 역할을 담당하는 機構는 될

21) 上揭書, pp.149-150.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其他 協議委員會 구성제외에 대해서는 調節委員會를 구성하고 運營하다가 필요하면 만들자고 하였고 公表問題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公表되어야 하지만 發表時期는 신중히 고려하자고 거부하였다.

이러한 李·朴會談의 쟁점은 5월 31일 朴成哲이 靑瓦臺를 방문했을 때 朴正熙大統領이 보다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朴大統領은 朴成哲의 「준비한 원고 낭독(인사)」을 다 듣고 다음과 같이 명백히 말하였다.

《基本이 될 수 있는 3個原則(통일 3대원칙)의 협의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3개 원칙에 全的으로 同意하며 찬성합니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戰爭으로 이를 성급히 이룩하려 할 것이 아니고 平和的으로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體制, 理念, 世界觀이 다르더라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同族이란 의미에서 단결할 수 있다. 「外勢依存을 배격하자」, 「自主的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

이를 위하여 「協議機構를 만들자」하는 것도 찬성한다, 以北의 金英柱部長과 李厚洛部長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진지하게 검토하여 서로 합의된 方案이 나오면 나로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입니다. ……

문제는 「어떠한 方法으로 추진하느냐」이다. …… 現實은 현실대로 인정해야 한다. 南北은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軍備를 갖추고 가끔 충돌이 있으며 또 27년간 쌓이고 쌓인 精神的 障壁은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에는 順序와 節次가 있다, 現實

的으로 높은 障壁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려면 벽돌을 하나씩 제거해야지 한꺼번에 허물수 없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사이에 서로 믿는 분위기를 造成하고 그 바탕위에서 이런 문제를 論議해야 해결됩니다. 그런 바탕도 없이 논의해 봤자 서로 理解의 부족으로 모처럼 트인 對話마저 막히지 않겠는가? 3개 원칙은 전적으로 歡迎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解消되었느냐?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부터 不信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國民에게 발표할 수 있겠느냐? 朴副首相은 方法論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戰爭에 피해를 입은 親戚, 家族이 以北도 만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戰爭이 왜 일어났느냐? 옛말대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일을 더 말할 필요는 없겠지. 남쪽에서 쳐오기 때문에 우리가 南侵했다고 당신들은 변명하겠지만. 不信의 原因은 여하튼 戰爭입니다. 또 休戰後 間諜과 게릴라를 얼마나 내려보냈습니까. 나를 暗殺하려 金新朝팀이 400 m거리까지 왔었습니다. 나는 그때 침실에 들어 가려다 총소리 듣고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原則的 合意가 되었더라도 南의 동포들이 갖는 不信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朴副首相은 原則的 合意를 이루고 이를 公開하자고 하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公開하는 것은 反對입니다.

분위기가 造成되고 與件이 성숙되면 나와 金首相이 만나 특털어 놓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與件이 아닙니다. 不信問題와 같은 먼저 해결할 문제가 山積되어 있는데 지금 만나 보았자

南北問題解決의 구체적 진전은 어려운 것입니다. >>²²⁾

위 朴正熙大統領의 말에서 우리측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筆者는 당시 大統領은 북측의 企圖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으며 때문에 對話의 「이니셔티브」를 北側에게 넘길 理由가 없다고 판단하고 對話進行의 신중성을 계속 강조했다.

이 때문에 南北對話는 탐색 과정이 계속될 듯이 보였다.

그런데 1972년 6월 하순부터 남북간에는 7·4 南北共同聲明 작성을 위한 電話通信이 오고가기 시작하였다.

이 共同聲明의 內容은 平壤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李厚洛·金英柱 會談 그리고 金日成과 李厚洛部長, 朴正熙大統領과 朴成哲간에 주고 받았던 내용(합의)을 骨幹으로 처음부터 짜여져 있었다는 것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不過 2주만에 成事될 까닭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당시 共同聲明 署名者로 될 兩側代表(김영주부장과 이후락부장)의 資格이나 共同聲明의 법적인 性格問題 등을 놓고 쌍방간에 見解差가 있었다는 사실을 看過할 수 없다.

北韓側은 우선 서명할 當事者들이 완전히 統治權者의 全權代表의 資格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朴正熙大統領의 委任에 의하며」, 「金日成首相의 委任에 의하여」라고 明記할 것을 제의한데 반하여 우리측은 「上司의 뜻을 받들어」라고 署名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

22) 上揭書, pp. 167-169.

한편 南北이 발표할 文書의 성격도 북측은 條約과 같은 性格을 가진 文書, 「상당한 全權委任을 받은 代表들사이에 이루어지는 文書」로 할 것을 제의하며 단순한 宣言的 意味를 띤 文書가 아니라 條約的 性格을 띤 「共同合意書」로 하자고 제의한데 비하여 우리측은 兩側 指導者의 統一에 대한 기본생각과 統一問題解決을 위해 지켜져야 할 原則問題를 담은 宣言的 文서인 「共同宣言」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

현재 不可侵宣言問題를 놓고 總理會談에서 오고가는 主張과 거의 반대 現象을 보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측이 이처럼 消極的이었던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 北側企圖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警戒心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와 함께 國內政治에서 發生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가지 不作用과 法律上 制約 때문에 不可避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北韓側은 당시의 南北關係와 國際情勢를 감안하여 積極的인 平和攻勢를 펴야 한다는 對南戰略上의 이유와 역시 1人獨裁라는 政治力이 작용하여 가능한 명백한 拘束力있는 文書로 合意하려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72년 7월 4일 10시 서울과 平壤에서 양측 代表(李厚洛부장과 朴成哲부수상)에 의해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聲明이 발표되던 그날부터 北韓側의 企圖는 좌절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南北共同聲明이 담고 있는 基本的인 두가지 問題에 대해 우리측이 北側에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는 UN을 外勢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었고, 둘째는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된 이후의 南北關係는 「對話없는 反目的 對決」에서 「對話를 통한 對決의 時代」로 이행 한데 불과하다는 「對決 持續性」 認識을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李厚洛部長과 朴成哲副首相의 記者會見內容을 비교하면 이 聲明에 기대하는 兩側代表의 期待値가 얼마나 현격한 差異를 띠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측의 경우는 결코 北側의 企圖를 許容하지 않겠다는 態度를 보인 반면, 北側의 경우는 「경애하는 金日成同志께서 밝혀주신 우리黨과 共和國政府의 자주적 平和統一方針의 빛나는 勝利이며 특히 그이께서 8월 6일(1971년 8월 6일 시아누크 歡迎大會에서 행한 연설, “南韓의 民主共和黨을 포함한 政黨·社會團體 및 個別的 民主人士와의 접촉용의” 表明)에 하신 歷史的인 演說과 그후 거듭 천명하신 획기적 救國方案의 훌륭한 結實」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서로 상이한 南北共同聲明에 대한 해석, 그중에서도 제 1 항 統一 3大原則에 대한 解釋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동년 10월 12일 개최된 第1次 共同委員長會議때부터 양측간의 對話는 격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격돌의 과정과 北側의 政治會談 戰略을 理解하기 위하여 共同聲明發表이후 第1次 共同委員長會議까지의 3개월간에 北韓側이 취한 事前準備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南北赤十字本會談을 성사시키면서 「國家와 政黨·社會團體 대표로 구성되는 諮問委員團」을 赤十字代表와 함께 참석시키도록 하였다.

이것은 人道的인 문제를 토의하게 될 赤十字會談을 政治會談化하고, 그들이 말하는 南北諸政黨・社會團體間的 交流와 協商으로 변질시키자는 그들의 企圖를 명백히 드러냈다. (1972년 7월 14일 第22次 赤十字 豫備會談 이후 사항 參照)

둘째로 1972년 9월 8일 西獨 뮌헨市 웨라톤호텔에서 南北體育共同 聲明이 합의되었다.

역사적인 7·4 南北共同聲明 원칙에 의하여 南北體育人들은 새역사 創造의 사명감을 인식하고 民族團結의 旗手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南北體育交流 회담을 위하여 南北代表가 서울과 平壤을 방문토록 서로 초청하자는 것과 南北調節委員會를 경유하여 연락하자는 내용이었다.

셋째로 同年 9월 17일 金日成의 聯邦制主張이 세삼 발표되었다.

日本 마이니찌新聞의 기자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을 빌어 (1) 南北政黨・社會團體들의 連席會議나 南北當局者들의 會議 또는 最高人民會議 代議員들과 南朝鮮 國會議員들의 聯合會議 같은 政治協商會議를 개최하자 (2) 聯邦制를 실시하여 南北間的 신뢰회복과 民族的 團結을 위하여 外勢의 간섭없이 南北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政府를 세우자 (3) 現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南北政府의 대표로 最高民族會議를 조직하고 南北사이에 제기되는 政治・經濟・軍事・文化的 問題를 해결하자 (4) 南北間的 體育單一팀, 單一藝術團을 구성하며 記者代表部 또는 新聞社支局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措置들은 앞으로 시작될 南北調節委員會에서 北韓側이 전개할 會談戰略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들 이었다.

1972년 10월 12일 板門店 「자유의 집」에서 개최된 南北調節委員

會 제 1 차 共同委員長會議은 벽두부터 7·4 南北共同聲明의 합의사항, 그 중에서도 특히 제 1 항 「統一 3 大原則」의 해석과 그 實現方途를 놓고 격렬한 論爭을 전개하였다.

이 會議에서 北韓側은 統一 3 大原則에 남쪽이 同意한 이상 (1) 反共政策을 포기하고 共產主義를 용납하며 (2) 統一과 관련하여 더 이상 自由民主主義體制 擁護를 주장하지 말아야 하며 (3) 유엔도 外勢이니 어떤 형태로든지 統一問題에 개입할 수 없으며 (4) 駐韓美軍을 철수해야 하며 (5) 韓國軍은 美國으로부터 각종 軍事裝備와 軍事物資를 들여오지 말고 「포커스 레티나」 作戰訓練 같은 전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北韓側은 國務總理가 國會에서 답변한 問題, 심지어 10월 1일 국군의 날 紀念式에서 행한 朴大統領의 연설문까지도 7·4 南北共同聲明 정신에 어긋나는 行動이라고 강력한 非難을 퍼부었다.

이 第 1 次 共同委員長會議에서 내놓았던 北韓의 주장은 南北調節委員會가 계속되는 기간 되풀이 되었다.

同年 11월 2~3일, 2회에 걸쳐 平壤에서 개최된 共同委員長 第 2 차회의는 1 차때와 마찬가지로 상호비난을 교환하면서도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채택하였고 이와함께 「쌍방은 서로 誹謗·中傷하지 않기로 한 南北共同聲明의 조항에 따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하여 對南, 對北放送과 (군사분계선상에서의 擴聲器에 의한 對南, 對北放送) 상대방지역에 대한 뼈라살포를 그만 두기로 하였다」는 合意聲明을 발표할 수 있었다.

第 2 次 共同委員長會議 기간중 가장 중요한 行事は 역시 우리측 5

명의 代表團들이 金日成과 면담하고 함께 점심을 나누면서 그의 眞意를 읽을수 있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당시의 對話內容中 南北間의 經濟合作(탄광, 철광, 어업 공업 등), 社會團體(언어, 과학 등)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김일성이 말하고자 했던 요점은 軍事問題 우선 토의와 政治合作을 통한 南北聯邦制 제의에 대한 우리측 態度를 타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편의상 우리측의 記錄과 북측의 文獻을 종합하여 이 문제에 관한 부분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辨證法的으로 생각한다, 政治·文化·社會 그 어느것 하나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고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南北關係를 푸는 옳은 方法은 서로 合作하여 軍備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政治合作하면 南北사이의 信賴를 깊게 하고 緊張狀態를 완화할수 있으며 南北의 軍隊를 각각 10만 정도로 줄일수 있어 인민들의 軍事的 부담도 덜어줄수 있다, 당신들은 2억 5,000만달러의 援助나 받지만 우리는 원조도 없습니다.

南北韓의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南北聯邦制를 실시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에도 그 制度를 그냥두고 北에도 그 制度를 그냥두고 초보적이거나 聯邦制를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對外的으로 나라이름은 하나여야 한다, 高麗聯邦共和國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분열된 나라로 유엔에 加入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안들어 간다, 남

조선이 들어 가려해도 못들어 간다, 拒否權이 있기 때문입니다.

高麗聯邦共和國을 해서 南北이 共同議長을 담당하면 됩니다.

이것을 한번 研究해 보시오, 원래 이 말은 朴大統領을 만나서 이야기하려 했는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鬭爭狀態를 풀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合作해 봅시다. 軍事問題 서로 軍縮합시다. 군사부담이 너무 큼니다. 이것을 축소하는 것이 政治的 信賴와 연관됩니다.》²³⁾

그가 하고자 했던 요점은 軍事問題 우선 토의와 聯邦制 실시를 위해 南北調節委員는 政治合作問題를 우선 討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외 南北間의 經濟協力 問題와 관련하여 제시한 그의 주장도 1984년에 개최된 經濟會談의 基本原則으로 되었다는 점에서 留意해 둘 만 하다.

《日本 自民黨 國會議員이 왔을때 너희들한테 팔것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철광석, 무연탄 …, 우리는 너희들의 原料供給地, 消費市場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1대1로 貿易하자고 했습니다.

호루시초프時代에 「코메콘」에 들어오라 했는데 우리는 안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원료만 판다면 우리는 산구멍만 남을수 밖에 없습니다. 너희들도 우리 機械 사라, 機械對 機械, 原料對 原料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안사가면 안해요, … 당신들은 (소련)大學生이고 우리는 幼稚園에서 사랑사랑 크겠다고 했습니다...》²⁴⁾

23) 「金日成著作集」 27권, pp. 190-191.; 「南北對話史料集」, pp. 366-367.

24) 「南北對話史料集」, p. 368.

이러한 金日成의 말은 1980년대 개최되는 南北經濟會談에서 우리에게 提示된바 있다는 점을 우선 指摘해 둔다.

第2次 共同委員長會議에서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合意書가 채택되기 까지 南北雙方이 작성했던 草案을 보면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에 관해서는 彼此간에 그렇게 큰 修正은 없었으나 構成問題에 있어서, 특히 分科委員會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측이 經濟·社會問題를 중심으로 하는 段階的 機能主義的 구성을 제시한데 비하며 북한측은 政治·軍事問題를 중심으로 하는 政治優先主義的 구성을 제의하여 몇 차례의 修正을 거쳐 「3의 다項」은 「南北調節委員會 안에 政治·軍事·外交·經濟·文化分科委員會를 둔다. 각 分科委員會는 南北調節委員會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며 그 機能과 構成은 쌍방의 合意에 의하여 따로 規定한다」로 合意되었음을 지적해 둔다.

第3次 共同委員長會議는 72년 11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이會議에서 드디어 南北調節委員會가 構成되어 共同委員長會議가 第1次 南北調節委員會로 말전되었다는 것이 特徵이다.

이會議에서도 역시 節次的인 問題에 대해서는 쌍방이 서로 合意할 수 있었으나 本質的이고 基本的인 問題에 있어서 치열한 對立을 나타냈다.

이會議에서의 平壤側의 기도는 南北調節委員會議 實務的 問題에는 거의 關心을 돌리지 않고 「共同聲明이 나온 이상 南北의 信賴는 이루어진 것이므로 (1) 우선 남북간에 軍事代表會談을 열어 남북간의 軍事的 대치상태 解消方案을 협의해야 하며 (2) 政治·軍事·外交·經濟文化的 5개 分科委員會를 동시에 일괄 發足 시키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우리측 주장은 「信賴란 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고 이
록되지 않았으므로 分斷現實을 감안하여 마찰이나 抵抗要因이 적은 非
政治, 非軍事分野－經濟・社會分科委員會를 구성하고 신뢰를 축적해 나
가는 것이 오히려 統一與件造成에 긴요한 問題」라고 주장하였다.

北韓側 朴成哲은 軍備縮小 논의, 文化・經濟부문의 協力과 함께 또
다시 「南北最高位級會談」을 속히 개최할 것을 提議하면서 「이미 金
日成수령님과 朴大統領사이에 비록 間접적이기는 하지만 祖國統一을 위
한 原則과 그 實現을 위한 쌍방 互相關係의 發展方向에 대해 이미
완전한 意見一致가 이루어지고 두분의 뜻을 합쳐 민족적인 共同機構
까지 마련하게 된 오늘날에 와서는 윗분들의 직접적인 相面이 절실
한 문제로 提起되었다」고 말하고 南北頂上會談의 조속한 개최를 촉
구하였다.

이러한 北側態度에 대한 우리측의 대답은 그 누구보다 朴正熙大統
領이 명백히 하였다. 12월 1일 저녁 南北調節委員會 일행이 靑瓦臺를
방문했을때 大統領은 「먼저 赤十字會談과 같은 人道的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면서 信賴를 회복해야 어려운 문제
도 풀수가 있다, 이번 調節委員會에서 軍備縮小問題가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 問題도 언젠가는 풀릴 것입니다.……

南이나 北이나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軍隊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60만 軍隊를 줄일수 있는 형편이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를 내는 것은 빠릅니다. 赤十字會談이 1년 걸리고 平壤과 서울
에서 本會談을 가졌는데도 지금도 문제가 풀린 것은 하나도 없지 않
느냐 하는 疑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兵力을 축소하면 6.25 때

처럼 처내려울 것이라는 국민들의 疑惑이 클것이고 오히려 일을 어렵게 한다. ... 政治問題는 저멀리 끄집어 내고 다른 문제부터 계속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 減軍이라 하는 이런 政治問題는 아직 제기되지 않아야 합니다. 南과 北의 體制와 理念이 다릅니다. 여기서 政治問題를 제기해 봐야 結論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로써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명백히 전달되었다.

이로써 南韓側은 南北調節委員會라는 政治協商機構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바라는 政治協商의 길은 쉽게 뚫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北側의 失望은 1973년 3월에 개최된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평양)에서 경직된 會談態度로 나타났다.

北韓側은 軍事問題 5個項의 우선해결을 주장하며 강력한 語調로 우리측을 비난했다.

平壤側이 제시한 5개항의 軍事提案은

- (1) 南北韓의 武力增強과 軍비경쟁의 中止
- (2) 相互 10만 또는 그 以下로의 減軍과 軍비 축소
- (3) 外國으로부터의 일체의 武器, 작전장비, 軍需物資 반입중지
- (4) 美軍을 포함한 外國軍撤收
- (5) 이상의 문제의 解決 및 武力不行使를 담보하는 平和協定の 체결이었다.

朴成哲은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南北調節委員會를 개편하여 쌍방의 軍事代表를 참가시키든가, 아니면 軍事分科委員會를 우선적으로 構成하자고 提議하였다.

그런가 하면 南北調節委員會와는 별도로 「祖國統一을 위한 모든 사업은 全民族的·全人民的 위업인 만큼 각 政黨·社會團體 연석회의를 열든가, 南北調節委員會에 남북 각 政黨·社會團體代表들을 참가시킴으로써 각계각층 人民들의 意思를 반영하여 온 민족의 總意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北韓의 이러한 발언은 이미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해서도 北韓이 기도하는 戰略的 課題들의 해결가능성이 없음을 판단한 證據였다.

그날 저녁 玉流館에서 개최된 만찬회에서 朴成哲은 관례를 깨고 會談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공개하며 本格的인 비난선전을 恣行하였다.

金日成도 「地方現地指導 訪問中」이라는 이유로 面談하지 않았다.

1973年 6月 12日~13日 서울에서 개최된 第3次 南北調節委員會는 第2次會議의 再版에 불과하였다.

우리측은 經濟·文化·科學技術交流, 資源共同開發, 상품전시회, 商社들의 支社설치, 南北單一팀構成, 映畫·舞臺藝術公演·考古學·民族歷史의 공동개발, 記者交流, 書信·電話·電報 등 通信交流, 觀光交流 등을 다룰 經濟·社會分科委員會 構成과 그 사업진행을 제의했지만 北韓側은 南北諸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개최, 5個分科委員會 構成과 5개 軍事問題 우선토의를 요구하여 會談 자체가 중대한 局面에 봉착하였다.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 「幹事會議」를 구성하여 南北調節委員會 부위원장 회의를 지속키로 하고 1975년 3월까지 板門店 南北兩側을 오고 가며 10회의 副委員長會議를 계속하였지만 아무 成果도 창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南北調節委員會는 北韓側의 당초의 企圖, 統一戰線 형성을 위한 政治協商으로 시작하였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中斷되었다.

이 會議를 통해 우리는 南北對話에 임하는 北側態度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原則下에 會談戰略이 전개되는가를 經驗적으로 터득하게 되었다.

한가지 부언해 들것은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해 北側은 南韓情勢에 대한 再認識을 하게 되었고 革命情勢造成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보다 至難한 과제로 되었음을 인식하고 統一戰線의 전략적 運用을 위한 平和攻勢, 宣傳場化 하는데 치중하였다는 점이다.

우리가 南北對話에 임할때 유의해야 할 점은 會談場만이 「鬭爭場」이 아니라 會談場밖 역시 치열한 宣傳場, 탐색을 위한 偵察의 場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北韓側은 항상 會談場 안에서의 주장에 맞추어 이른바 會談場 밖에서 활동하는 新聞記者, 심지어 警護要員, 案内員까지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두개의 戰場」을 준비하고 그 要員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政治會談은 어느 쪽이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가로 판가름나게 마련이다.

第3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의 北韓의 태도가 不變임을 확인한 우리는 1973년 6월 23일 「平和統一外交政策에 관한 宣言」(6.23 宣言)을 發表하고 國際社會에서의 지위향상의 轉機를 마련하였고 北韓側은 같은날 「祖國統一 5大綱領」을 제시하여 國內外 宣傳戰에 전력하게 되었다.

나. 1980년대 南北對話에서의 北韓側 주장과 戰術

1979년에 일어난 「10.26事態」는 북한에게는 4.19 혁명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절호의 機會였다.

金日成의 말대로 한다면 이것은 「祖國의 統一의 장애물인 狹隘적 維新獨裁體制의 붕괴」였고 「民主化를 위해 靑기한 南朝鮮人民의 일대승리」였다.

이와같은 革命의 好機가 도래한 이상 「南朝鮮人民들로 하여금 투쟁의 새로운 突破口를 열게하고 광범한 애국적 民主勢力의 조직결속을 다그치고 새로운 鬭爭組織을 내오거나 整備하면서 더 많은 革命力量을 결집시키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課題였다.

더욱 1970년대 후반이후 維新反對勢力이 점차 革新的 이데올로기를 띤 새로운 세력을 배출해 냈다는 점을 고려할때 北韓側은 하루 속히 이를 容共左翼勢力으로 발전시키고 그들의 立地를 강화시켜 이들이 南韓內에서 새로운 政治勢力으로 부상할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南韓內 民主·進歩勢力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維新政府가 유지했던 對北政策, 특히 統一政策의 反動性을 입증하고 앞으로 등장할 보수정치세력들의 對北政策의 강경성을 사전에 弱化시킬수 있도록 北韓 스스로 南朝鮮革命 논리를 은폐하고 民族의 입장에서 統一政策을 제시하는 것처럼 행동해야만 한다.

이러한 戰術을 취하는 것이 바로 南韓內 反美·反保守 統一戰線을 확대하며 革命力量을 축적하는 關鍵이다.

北韓側은 남한내 左翼勢力間의 통일전선형성은 물론, 左翼勢力과 民主勢力간의 統一戰線, 反維新·反軍部勢力간의 統一戰線 등 다양한 戰線을 형성하기 위한 戰術的 고려에서 崔圭夏政府下에 새로 등장한 각 세력을 상대로 한 對南提議를 제시하였다.

그 첫 措置가 1980年 1月 11日 副主席 겸 黨秘書이며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委員長 金一 명의로 南韓의 주요인사 11명에게 보낸 便紙와 政務院總理 李鍾玉 명의로 國務總理에게 보낸 편지였다.

金一이 보낸 편지의 대상인물은 (1) 「民主主義와 民族統一을 위한 국민연합」 共同議長 金大中, 尹潛善, 咸錫憲 (2) 新民黨總裁 金泳三 (3) 民主統一黨 總裁 梁一東, 統一社會黨 고문 金哲 (4) 統一社會黨 委員長 安弼洙, 韓國天主教 中央協議會 會長 金壽煥, (5) 民主共和黨 總裁 金鍾泌, (6) 陸軍參謀總長 李煥性, 民主共和黨 상임고문 丁一權 등이 있다.

같은 내용의 편지가 1月 15日 海外에서 활동하는 주요인사, 예를 들면 美國의 林昌榮, 캐나다의 金在俊목사, 崔德新, 日本의 張聰明(居留民團長), 金載華, 西獨의 尹伊桑 등에게 발송되었다.

金一편지의 요지는 「나라의 統一과 관련된 諸般問題를 허심탄회하게 상론할 것을 희망하며 板門店, 서울, 平壤 또는 제 3국에서 서로 접촉할 것」을 提案하는 것이었다.

한편 같은 날(1월 11일) 北韓 政務院總理 李鍾玉이 申鉉禧總理에게 보낸 편지의 요지는 「北과 南의 당국자들이 최근의 國內情勢에 대한 民族的 자각을 높이며 조선사람들끼리 合作·團結하여 統一을 실현함으로써 民族의 출로를 타개하여야 할 時期에 이미 北側이 제의한

바 있는 폭넓은 政治協商會議과 함께 當局者會談 및 高位當局者會談을 개최할 用意이 있으니 서로 만나 격의없이 意見交換할 것을 제의한다. 접촉할 장소는 板門店이나 평양·서울 또는 第3國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提議內容으로 보아 北韓側이 기도하는 目標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問題였다.

그렇다고 하여 北韓側 提議(두가지 제의)에 동시에 응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우선 우리측은 南北總理會談 開催를 제의하게 되었다.

1980年 1月 24日 우선 南北總理會談을 위한 實務代表接觸을 제의하였고 이것을 北側이 수락함으로써 2月 6日 이후 9회에 걸친 實務代表接觸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期間中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격동은 우리나라 歷史上 가장 극심한 것이었다.

2월 이후 高麗大學校가 중심이 되어 「학원민주화위원회」가 발족하였고 在野勢力은 「民主主義와 民族統一을 위한 國民聯合」, 「민주헌정동지회」, 「민주연합청년동지회」등 여러단체가 출범하여 維新體制의 청산을 요구하는 民主化運動이 전개되었고, 기성 政黨들도 제각기 차기 정권장악을 위한 競爭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崔圭夏政權下의 國內秩序는 말그대로 混沌 그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정적 시기를 노리는 두세력에서 유리한 정세였다. 그 하나는 次期政權을 장악하려는 한국 軍部에게 絶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광범한 統一戰線을 형성하려는 北韓共產主義者들에게 好機를 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출된 民主化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고 더욱 확대되어 드디어 光州事態를 낳게 되었다.

이런 판국에도 北韓側은 南北總理會談을 위한 實務接觸을 계속하여 이 會談場所를 崔圭夏政府와 韓國軍部를 규탄하는 宣傳場으로 이용하였다.

그 代表的 현상은 80年 5月 22日 개최된 8次會談과 6월 24日 개최된 第9次 會談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第8次 實務接觸에서 한 北韓側 발언요지는 「南韓當局者들은 5월 17일 우리를 걸고 南朝鮮地域에 非常戒嚴令을 선포하여 1천수백명의 청년학생들과 政治人들을 체포구금하는 暴壓措置를 취한 것은 對話相對者인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挑戰이다」라고 규탄하면서 이런 狀態下에서는 이런 접촉이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第9次 實務接觸에서는 「우리를 걸고 선포한 非常戒嚴令을 해제하고 軍政統治를 철폐하며 우리를 걸고 民主主義나 나라의 平和統一을 주장한 사람들을 彈壓・虐殺하는 殘暴行위를 중지하며 우리를 걸고 체포 투옥한 모든 青年學生들과 인민들과 民主人士들을 지체없이 석방할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남한측은 현재 總理도 없는 형편에서 議題討議도 무의미하니 總理가 임명된 다음 議題討議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다.(5월 21일 내각개편으로 朴忠勳씨가 總理署理로 임명되었던 시기였다)

第10次 實務接觸이 예정되었던 8월 20일을 앞두고 8월 16일 崔圭夏大統領이 사임하고 朴忠勳 總理署理가 大統領權限代行에 취임했다.

이렇게 되자 北側은 더 이상 總理會談을 위한 實務接觸이 불필요

함을 인식하고 會談中斷을 발표하게 되었다.

1980年 8月27日 統一主體國民會議는 새 大統領으로 全斗煥將軍을 선출하였고 9월 1일 제 11대 大統領으로 취임하였다.

北韓側의 第5共和國에 대한 평가는 간단 명료하다. 그것은 「軍部 팻쑈政權」이라는 것이었다. 軍部팻쑈政權이 지배하는 시기에 北韓側이 전개할 對南戰略의 戰術基調는 軍部팻쑈政權을 孤立化하기 위해 광범한 「反美·反팻쑈統一戰線」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北韓의 戰略方針은 1980年 10월에 소집된 勞動黨 第6次大會에서 행한 金日成의 「中央委員會 總和報告」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情勢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 南朝鮮은 대중적 살육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人民들의 自由와 權利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 말기의 가장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었습니다.

南朝鮮의 현 軍事팻쑈分子들이 감행하고 있는 暴壓蠻行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팻쑈獨裁者들을 훨씬 뛰어 넘고 있습니다. 歷史는 아직 南朝鮮의 軍事팻쑈統治輩들과 같이 한꺼번에 수천명의 同族을 총칼로 살육하고 政治的 反對派들을 잔인하게 처형한 인간백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²⁵⁾

위에서 인용한 金日成의 평가가 바로 北韓側의 南朝鮮情勢에 대한

25) 「朝鮮中央年鑑」, 1981, p. 84.

규정이다. 그렇다면 北韓側이 第5共和國를 상대로 전개해야 할 對話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反美·反팻쑈統一戰線 형성을 위해 南韓國民을 사상적으로 教育할 수 있는 「教養資料」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10월 10일 행한 金日成의 報告에서 제시된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創立方案을 南韓국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그 正當性을 입증하는 南北對話 외에 어떤 對話도 불응한다는 것이 당시 北韓側의 대화였다.

당시 北韓側이 제시한 聯邦制案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前提條件」(反共法, 國家保安法의 폐지, 統一革命黨을 포함한 政黨·社會團體의 合法的 政治活動인정, 南韓政權의 民主主義政權으로의 交替 등)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第5共和國政權과의 어떤 協商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었다.

이러한 北韓의 南韓情勢에 관한 規定이 내려져 있던 時期에 全斗煥政府는 1981年 1月 21日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한 北韓側 回答은 1월 19일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委員長 金一의 명의로 발표된 聲明形式으로 나왔다.

이 聲明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全○○역도가 이른바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을 들고 나온 것은 그 자체가 지난 반년 남짓한 기간 겨레의 피로 얼룩진 反逆의 행적을 걸어온 자가 民族의 念願을 희롱하고 신성한 民族의 위엄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격에 맞지 않는 것을 들고나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
장부터 바로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全○○은 거래를 대량학살한 천추에 용납못할 民族反逆
行爲에 대하여 온 민족앞에 謝罪하여야 한다.

둘째로 金大中을 비롯하여 체포투옥한 南朝鮮의 모든 民主人士
들과 青年學生들을 석방하고 해체된 民主政黨들과 團體들을 회복
시켜야 한다.

셋째로 동족사이의 不信과 對立을 조장하는 反共對決政策을 포
기하여야 한다.

넷째로 「두개조선」을 政策으로 선언한 이전 獨裁者의 「6.23
宣言」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取消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美國軍隊의 南朝鮮으로부터의 철거를 요구하여야 한
다.

…… 南朝鮮 勞働者·農民·青年學生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
과 애국적 인사들은 굳게 단결하여 美帝와 南朝鮮괴뢰들의 「두개조
선」 조작 책동에 의한 永久分裂을 막으며 나라의 統一과 南朝鮮
社會의 民主化를 실현하기 위한 救國聖戰에 한걸같이 일떠서라」²⁶⁾

이러한 北韓의 반응은 앞으로 어떤 對話에도 불응할 것이라는 결
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北韓側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全斗煥大統領은 1981年

26) 「朝鮮中央年鑑」 1982, p.290.

6月5日 소집된 第1次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연설에서 다시 한번 「南北當局 最高責任者會談」開催을 提議하고 있다.

1981년 7월 1일 金日成은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결성 25주년 기념식에 보낸 祝賀文에서 「現 南朝鮮政府와는 어떤 형태의 對話나 接觸도 할 수 없다」고 정면 거부하였다.

그후 우리측은 「南北體育會談提議」(81.6.19) 「南北韓 古代遺物交換提議」(81.11.16)를 비롯하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82.1.22)을 제안하였고 이에 더하여 「20개 示範實踐事業」(82.2.1)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에 대한 北韓의 反應은 말할 필요도 없이 「全面拒否」였고 그대신 「反美·反政府 統一戰線」 形成을 위한 제안들이 反復되었다.

예를 들면 1982年 1月26日字 「聯邦制統一方案에 대한 지지와 수락 요구 聲明」, 2月 1日字 祖國平和統一委員會의 「南北政治人 100人聯合會議소집 聲明」, 1983年 1月18日字 「南北政黨·社會團體 聯合聲明」으로 제의된 「南北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召集 제안」등이 그것이다.

北韓側이 第5共和國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極限에 달했던가는 1983年 10月9日에 자행한 버마 아웅산묘소 폭탄테러사건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이 사건은 北韓政權이 第5共和國 수립 초기에 가졌던 南韓情勢판단이 날이 갈수록 빛나가고 있다는데 대한 焦燥와 不安을 단적으로 立證한 것이었다.

다시한번 「10.26事態」를 야기하면 南韓情勢는 견잡을수 없는 혼

란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經驗的 判斷」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히 全斗煥大統領이 테러를 모면하고 副總理이하 16명의 外交使節만 희생됨으로써 北韓의 판단은 逆轉되어 국제적 孤立을 면할수 없게 되었다.

83年 11月 11日 來韓한 레이건 美國大統領은 「韓國의 안전은 東北亞 安定에 있어 死活的인 문제이며 美國의 안정에도 긴요한 問題」임을 선언하게 되었다.

랭군폭탄테러事件은 오히려 南韓內에서 對北警戒心を 강화하여 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一時的 이나마 「마이너스」결과를 가져왔으며 뿐만 아니라 國際社會에서 테러國家로 烙印찍힘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의 支持조차 제대로 받을수 없는 狀況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南韓에 대한 태도를 조금씩 變化시키지 않을수 없었고 그 徵候로 나타난 것이 84年 1月 10日 日字 「서울當局 및 美國政府와 議會에 보내는 中央人民委員會·最高人民會議 聯合會議 편지」로 제안된 南北朝鮮 및 美國間의 3者會談 提議」였다.

이 提案은 그동안 유지해 온 戰略方針을 수정함이 없이 南北對話를 再開하는 명분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 곧이어 그들은 南北對話를 재개하자는 提案을 내놓았다.

(1) 南北體育會談

北韓側이 南北體育會談을 제의해온 것은 84年 3月 30日 이었다.

1980年 모스크바올림픽은 蘇聯의 아프가니스탄介入으로 西方側 불참이 확실해짐에 따라 韓國불참도 당연지사이니 구태여 體育會談開催로 韓國參加를 방해할 필요가 없었지만 23회 LA올림픽은 우리측이 참가하고 北韓側이 不參하지 않을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不參名分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도 南北體育會談을 개최할 필요가 있었다.

이 會談의 目的은 몇개월 앞으로 박두한 「84 로스엔젤스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명분으로 제안된 것이지만 그들의 속셈은 1981年 9月 30日 IOC 바덴바덴總會에서 88년 서울올림픽개최가 결정된 이후 이를 저지하려 노력했던 結果(여기에는 랭군 아웅산묘소 爆發事件도 포함)들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인식한후 提議한 것이었다. 再論할 필요도 없이 體育會談의 개최제의는 88 서울올림픽개최를 妨害하기 위한 術策의 일환이었다.

筆者는 國際情勢가 北韓側에게 얼마나 不利하게 전개되고 있는가, 과연 南韓情勢가 北韓勞動黨이 생각하는 대로 革命의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의 興否를 깨우쳐준 가장 重大한 事件이 바로 88 서울올림픽 유치였다고 생각한다.

南韓에서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것은 北韓側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올림픽개최는 한국의 國際的 位相을 비약적으로 向上시키는 것으로 되며 한편 南韓의 經濟成長을 입증하여 南北韓의 國력의 差巽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것으로 되기 때문이었다.

과거 30여년간 心血을 기울여 구축한 이른바 「3大革命力量」이 一舉에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北韓 으로서는 어떤 方法을 통해서라도 올림픽開催를 저지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南北體育會談을 열어 서울올림픽開催를 거부할 名分을 찾아야 하며 불연이면 얼마간의 競技를 割愛받아 무너지는 北韓의 體面을 유지해야 했다.

1984年 4月 9日 이후 5月 25일 까지 3차에 걸쳐 개최되었던 南北體育會談은 5년전 1979年 2月 27日 이후 3月 12日 까지 4차에 걸쳐 개최되었던 「南北韓 卓球協會 代表會談」이나 同年 12月 20日 北韓側 올림픽委員長이 제의했던 제 22회 올림픽대회 南北 「民族唯一팀」 구성을 위한 體育會談 제의때와 마찬가지로 論理였다.

그러나 명백한 차이는 당시는 北韓側이 유리한 立場에서 우리측 선수들이 平壤과 모스크바에 出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目的이 있었다면 84년의 南北體育會談은 유리한 立場에 있는 南韓側이 일방적으로 LA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北韓)들의 올림픽 不參名分을 獲得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體育會談에 임하는 北韓側의 基本原則은 1986年 10月 로잔느에서 시작한 南北體育會談, 아니 90년 南北體育會談까지 변함없이 견지되고 있다.

그들은 84년 LA 올림픽 不參, 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不參,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不參때 한결같이 의례히 이 會談原則에 의거하였다. 그 원칙이란 體育會談의 목적이 「唯一팀(統一팀) 구성」에 있는 만큼, 우선 단일팀 구성에 合意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實踐方案은 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과정의 問題를 논의함이 없이 우선 궁극적인 目的에 합의를 보자는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北韓側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듯

이 보이게 하여 우리측의 태도를 소극적이고 反統一的인 양 보이도록 하여 不參名分을 축적하는 회담전략이다.

이러한 對話戰略은 7.4 南北共同聲明에서 「統一3大原則」에 合意하고 이를 실현할수 있는 구체적인 方法을 방기했던 70년대의 經驗을 다시 체험케 하였다.

1984年 6月 2日 3次會談이 있은후 北韓側은 LA 올림픽 不參의 명분은 축적했다고 보고 일방적으로 會談中斷을 선언했다.

이로써 第5共和國 수립후 유일하게 再開되었던 南北對話는 일단 중단되고 말았다.

(2) 南北經濟會談

이런 시기에 우리는 洪水로 인한 水災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우리가 입은 水災는 과거 여러차례 입었던 水災에 비해 극심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機會를 이용하여 北韓側은 平和攻勢의 일환으로 水災物資提供을 제안해왔다. 第5共和國政府로서는 이러한 北側提議를 수락하면서 그 名分을 「同族間에 인도적인 문제에서부터 진정한 相扶相助의 길을 트고 나아가 南北韓의 관계를 改善해 가려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水災物資受諾發表는 北韓側을 당황케 만들었다. 왜냐하면 북한측은 아무런 준비없이 宣傳的 次元에서 제의했던 것인데 우리측이 이를 受諾한 때문이다.

그들의 企圖는 랭군 폭탄테러事件으로 窮地에 몰려 있던 당시의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 南韓에서 발생한 水災를 이용, 北韓의 인도주의

적 姿勢를 내외에 과시하여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를 우리측이 수락함으로써 막대한 負擔(북한측 발표로는 1,800 만달러)을 안게 된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측이 제의한 각종 南北對話에 응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北韓側은 南北會談에 응하기는 하되 구체적 成果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모든 南北會談을 政治會談으로 유도하여 이를 통해 美國과의 接觸을 시작하는 이른바 「3者會談」으로 이끌려 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企圖는 1984 년 가을 이후 시작된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國會會談 등에서 행한 代表團長의 基조연설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먼저 經濟會談에서의 北韓側 提議부터 검토해 보자.

第1次會談(84. 11. 15)이후 第5次會談(85. 11. 20)까지의 南北經濟會談과정을 검토해 볼때 北韓側이 취한 태도는 會談을 진행시키되 成果를 창출하지 않으며 이 회담 역시 政治合作으로 유도한다는 지난날의 會談戰略을 기본으로 하였다.

北韓側의 經濟會談에 임하는 基本態度는 第1次會談에서 행한 리성록(貿易部副部長)의 첫 발언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는 經濟會談(회담자체)과 관련된 基本原則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生産, 分配 그리고 所有, 管理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들과 경제적關係를 가지는데서 北과 南이 서로 다른 形式을 취하고 있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會談自體와 經濟的 合作과 交流를 원만히 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原則을 지켜야 한다.

첫째로 雙方은 經濟合作과 交流方案을 제기하고 그것을 토의·해결해 나가는 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自主, 平和統一, 民族的大團結의 3大原則에 기초해야 하며

둘째로, 雙方의 意思를 최대한 존중하는 原則을 지켜야 하며

셋째로, 雙方은 호상성의 原則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7)

위 발언에서 이미 北韓側이 규정한 經濟會談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

北韓側이 위 세가지 原則을 제시했다는 것은 經濟會談의 목적이 우리측이 바라는 南北韓의 經濟交流와 協力을 중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이 말하는 政治合作의 길을 찾으려는데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北韓側이 원하는바 대로 經濟會談을 이끌어 나갈수 없을 경우에는 會談自體가 무의미하며 따라서 北韓側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중단할 수 있도록 基本原則 자체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第2原則으로 제시한 「相互尊重問題」만 가지고도 그들은 얼마든지 會談을 中斷시킬수 있었다. 덤스퍼리트를 한다든가, 親北勢力을 체포한다든가 할때 이런 행위는 「北韓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하며 會談을 당장 중단시킬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經濟會談의 중단은 이런 이유에서 現實化되었다.

더구나 北側이 제시한 提案은 아직까지 南北間에 물건을 사고파는 通商조차 해본 일이 없는 時點에 이 과정을 뛰어넘어 經濟合作을 실

27) 「朝鮮中央年鑑」1985, p. 260.

현하자고 하였다.

北側團長은 南北韓의 經濟合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經濟合作과 관련하여 地下資源의 共同開發과 이용문제, 漁業分野에서의 合作問題, 農業分野에서의 合作問題 등 세가지를 제기한다.

地下資源의 共同開發과 이용에서는 雙方이 각각 자기의 勞力과 設備를 가지고 상대측 지역에 있는 鑛山과 炭鑛을 開發·利用토록 하되 우리측(北韓)에서는 철광산들과 炭鑛들을 제공하고 南側에서는 重石鑛山과 희유금속광산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漁業分野에서는 北과 南이 「共同漁撈區域」을 선정하고 물고기를 자유로이 잡게 하며 새로운 漁場을 共同으로 開發·利用하고 「水産業合營會社」같은 것을 組織·運營하자는 것이다.

農業分野에서는 南側地域의 서해 간석지를 共同開發하든지, 軍事分界線에 의하여 끊어진 灌溉網을 다시 연결시켜 이용하든지 하자는 것이다.』²⁸⁾

위 合作提議에서 鑛山開發을 위해서는 勞力(勞動者)과 設備를 각기 가지고 상대방지역에서 事業을 벌이자는 것이고 農業合作은 우리 지역(南韓)의 서해안 干瀉工事を 전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經濟合作提議은 그 발상부터 政治的 目的을 띠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

다음 문제인 「物資交流」에 대해서도 지극히 政治的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北側의 提議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28) 上揭書, p. 260.

「物資交流에서는 原資材와 完製品, 農水産物들을 有無相通하되 原資材는 原資材와 교류하고 完製品은 完製品과 교류하며 農水産物은 農水産物과 交流하자는 것이다。」²⁹⁾

이런식의 物資交流는 有無相通하는 것이 아니다. 原資材와 完製品을 交流할 수도 있고 農産品과 鑛産物을 교류할 수도 있어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서로 주고 받는 것이다.

문제는 南北 어느 일방도 經濟的 損失을 입지 말고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될 것인데 物資交易에서까지 철저한 相互主義原則을 적용하고 있다.

다섯차례에 걸친 經濟會談에서 양측이 제의한 提案의 구체적 差異는 別表(*)와 같지만, 문제는 北側이 經濟會談에 임하는 基本姿勢가 진실로 南北間의 經濟交流와 協力을 진행시킬 意思를 갖고 있지 않고 政治的 合作을 실현할 길을 찾는다는 對南戰略의 戰術로 이會談에 임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우리측의 적극적인 讓步에도 불구하고 아무 成果도 올릴 수 없었던 것이다.

29) 上揭書, p. 260.

* 雙方 提案의 差異點

區 分	南	北
合 意 書 名 稱	○南北間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 설치에 관한 合意書	○北과 南사이의 經濟協力 및 商品交流의 실현과 副總理級을 위원장으로 하는 「北南經濟協調共同委員會」 구성에 관한 合意書
事業推進 原則明記	○合意書 前文에 순수경제원칙 明示 一호혜 평등, 민족번영, 복지 증진, 평화통일 기여	○統一3原則(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포함하여 합의서 첫장에 獨立條項으로 설정
交流對象 品 目	○ 1, 2 次 會談時 합의품목을 合意書에 명시하고 合意品目부터 교류시작 一南側 판매가능품목 : 철강재, 섬유, 소금, 감귤, 남해수산물(김, 미역, 굴, 멸치 등) 一北側 판매가능품목 :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명태, 옥수수	○ 1次會談시 雙方 제안품목을 고려하여 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
去來方式 및 決濟 業務取扱 銀 行	○ 清算決濟方式을 원칙으로 하되 清算協定 체결전까지 잠정적으로 第3國銀行 발행 信用狀方式을 적용	○ 清算決濟方式 ○ 雙方이 지정하는 南北韓의 銀行

區 分	南	北
	○雙方이 지정하는 南北韓의 銀行으로 하되 잠정적으로 제 3 國은행 이용	
經濟協力 對 象	○ 1, 2 次 會談時 의견이 일치된 공동어로구역 설정, 地下資源 공동개발사업을 合意書에 명시	○ 賦存資源의 공동개발과 이용부터 시작(원칙적으로 共同委員會에서 합의·결정)
共同委員 會 機能	○ 既 合意事項(교류품목 등)의 履行機能을 공동위원회 기능속에 明示	○ 既 合意事項에 대한 履行機能 명시 不必要
分科委員 回 數	○ 2개 分科委 우선발족(물자교류, 경제협력) * 사업확대에 따라 特別分科委, 小委員會 設置	○ 6개 分科委 발족(자원개발, 공업 및 기술, 농업 및 수산, 상품교류, 운수 및 체신, 금융재정 등) * 될수록 部門別로 細分化
署名者의 權限委任 明示 署名欄에 國號明記	○ 합의서 署名者가 最高當局者로부터 權限을 위임받았음을 명시 ○ 合意書 서명난에 國號 明記	○ 雙方 단장의 서명으로 충분(最高當局者로부터 權限委任 명시 不必要) ○ 北側代表團, 南側代表團 방식으로 明記(國號表記 不必要)

※ 출처 : 國土統一院 편, 「南北對話白書」(1988), pp. 288 ~ 289.

(2) 南北赤十字會談

1984년 11월 20일에 재개된 南北赤十字本會談 재개를 위한 豫備接觸은 1973년 7월 第7次本會談(평양)이후 중단된 本會談再開의 문제였으므로 기히 합의된 議題를 가지고 7次會談때까지 논의된 문제를 討議·解決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면 족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1년동안에 客觀的情勢가 변화했다는 이유로 北韓側은 일부사항의 「協議·調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北韓側은 代表團의 구성에 있어 報道陣을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隨行員을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자 하였다.

이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이므로 우리측의 讓步로 수월하게 해결되었다. 그런데 새로 제기한 北韓側의 또 하나의 문제는 몹시 政治的 성격을 띤 제의였다. 그것은 11년만에 다시 재개되는 赤十字本會談만큼 8차회담(서울), 9차회담(평양)은 「祝祭의 분위기속에 진행시키기 위하여 雙方 藝術人들의 交換公演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런 常識에 어긋나는 제안이 어디 있는가? 離散家族의 고통을 덜어줄 합의문제는 뒤로 미루고 뭇이 것처럼 기쁘다고 「祝祭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인가?

이러한 北側의 제의는 다분히 金正日의 文藝部門 指導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誇示하기 위한 속셈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측이 拒否態度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離散家族을 찾아주는 赤十字會談은 처음부터 北韓側이 원치않는 會談이었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離散家族間의 相逢과 交

流는 북한내부 事情을 밖으로 公開하는 결과도 되며 이것은 남북에 거주하는 國民生活의 격차로 보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北側의 입장은 무슨 理由를 달아서라도 이 會談만을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우리측의 反對意思가 표시되자 일단 第8次本會談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8次本會談의 개최시기를 2개월후인 1985年 1月 23日로 잡은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팀스피리트訓練을 이유로 本會談을 연기하거나 회담자체를 拒否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北韓의 會談戰略의 交涉성을 회담날짜 決定過程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예상한대로 第8次本會談 개최시기는 연기되고 결국 85年 5월 28일~29일 양일간에 걸쳐 榑라톤호텔에서 再開하게 되었다.

北側提議의 중심문제는 세 가지였는데 그 하나는 합의된 5個議題를 일괄토의하자는 것(우리측이 순차별로 각각 討議하자는 것과 반대) 둘째는 自由往來를 실현하자는 것(南韓의 社會的·法律的 條件의 改善을 주장하기 위한 論理), 세 번째는 8.15해방 40주년이 되는 8월에 雙方 赤十字總裁가 각기 赤十字會員으로 구성되는 100명정도의 藝術團을 대동하여 相對方을 방문하여 藝術公演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離散家族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5個議題를 순차적으로 개별 討議해야 하며 부분적으로나마 그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해 「故鄉訪問團」을 교환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양측이 절충하여 故郷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의 交換問題를 實務討議에서 논의키로 合意하였다. 板門店에서 개최된 實務者會談에서는 故郷訪問團 50명, 藝術團 50명으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85년 8월 27일~28일까지 第9次本會談(평양)을 개최하였고 이어 12월 3일~4일까지 第10次本會談(서울)이 개최되었으며 합의한대로 故郷訪問團과 藝術公演團의 交換訪問도 실현되었다.

그런데 第10次本會談에서 우리측이 북측의 一括妥結에 동의하면서 그대신 「項目別 實踐方案을 다함께 제시하고 討議할 것」을 제의하자 이번에는 새로운 條件-「自由往來 이외의 其他方途들에 대한 提案」을 추가하였다.

이 提案이야말로 南北赤十字會談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피하려는 북한측 底意가 깊이 담긴 것이었다.

李榮德 우리측 首席代表의 지적대로 이 제안은 離散家族을 찾아주기 위한 5個方途를 혼동시키며 심지어 「方途와는 전혀 관계없는 親友」까지 새 事業對象으로 추가한 것이었다.³⁰⁾

이처럼 南北赤十字會談은 回를 거듭할수록 北韓側의 새로운 회담 지연작전에 휘말려 본래 의도했던 離散家族 모두의 苦痛을 덜어주는 成果를 거양하지 못하고 現在에 이르고 있다.

(3) 南北國會會談

第5共和國 시절의 南北對話에서 北韓側이 최대의 期待를 걸었던 회

30) 「南北對話白書」, pp. 245 ~ 247 李榮德 首席代表 演說文

답이 있다면 南北國會會談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1985年 5月 28日 개최되었던 第8次 赤十字會談에 참가했던 北韓側 수행원중 筆者와 만났던 몇사람은 赤十字會談에 대해서는 質疑한 일이 없으나 國會會談 開催여부에 대해 여러차례 質問한바 있었다.

北韓側이 이처럼 國會會談 개최여부에 미리부터 깊은 關心을 갖게 된 이유는 國會會談이란 그 자체가 政治會談(政治合作)이고 大韓民國 國會가 與·野 출신의 議員으로 구성되어 서로 相異한 政見이 노정된다는 점에서 그들이 노리는 上層統一戰線 형성의 주요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과거의 우리나라 國會史를 볼때 北韓側의 공작에 의해 상당한 수의 國會議員들의 國家顛覆을 위한 국회 활동을 恣行하였음을 알 수 있거니와 지금도 그들은 우리 國會에 자기들편에 설 수 있는 議員들을 扶植하거나, 아니면 문제별로 北韓側에 유리하게 行動해줄 수 있는 議員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1985年 4月 9日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7期 4次會議가 南北國會會談을 提議한 것은 統一問題에서 우리나라 國會를 양분하여 對立토록 만들겠다는 底意가 있었던 것이다.

이 便紙는 다음과 같이 北韓의 企圖를 분명히 드러내놓고 있었다.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和解와 信賴를 도모하며 나라의 緊張狀態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로서 北南國會會談을 가지고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할 것을 제의한다」³¹⁾

31)「朝鮮中央年鑑」, 1986, p. 246.

이 말은 北韓이 것처럼 수차 提議한 이른바 「3者會談」이 美國과 韓國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現實을 감안하여 우선 南北國會會談을 열어 不可侵共同宣言을 채택함으로써 「3者會談」 실현을 촉구해 보겠다는데 目的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同時에 이 회담을 통해 실제적인 「南北間의 連席會議」를 구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北韓側의 企圖는 同年 7月 23日 板門店에서 개최된 제 1차 接觸에서 행한 北韓側團長 全琴哲의 발언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³²⁾

1. 會談形式 문제에 대하여

國會會談은 쌍방 國會連席會議 형식으로 할 수 있고 國會代表會談 형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北韓)로서는 되도록이면 連席會議 方式을 취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다.

2. 代表團 構成問題에 대하여

連席會議를 하는 경우 國會議員 전원이 연석하면 쌍방 國會議員定員 數에서 차이가 있고 會談運營에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連席하는 측에서 약 100명 정도의 각 政黨出身 國會議員들을 선출하여 상대측 國會本會議에 참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國會代表會談을 하는 경우 각기 國會議長이나 副議長을 단장으로 하여 각 政黨出身 國會議員들로 代表團을 구성하되 지금 北과 南의 國會에 참가하고 있는 政黨 數를 고려하여 9~11명의 人員으로 구성

32) 上揭書, p. 247.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3. 會談場所 문제에 대하여

平壤과 서울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의견이다.

첫 國會連席會議나 國會代表團 會談은 平壤에서 먼저하고 다음 서울에서 하기를 희망한다.

4. 會談 議程에 대하여

쌍방 國會會談에서는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한다. 이 문제가 現時期 우리나라에서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초미의 問題이며 민족적 和解와 信賴를 도모하고 平和統一의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절박한 問題이므로 마땅히 國會會談의 최우선적 議題로 되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와 함께 南側이 주장하는 統一憲法 문제도 토의하는데 반대가 없다.

이상의 北側 提案說明에서 그들이 노리는 바가 바로 「3者會談」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고 동시에 國會를 향한 統一戰線工作을 전개하려는데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北側의 企圖는 連席會議를 거부하고 代表會談을 開催하며 不可侵宣言은 當局間에 협의할 문제이므로 국회 본연의 任務에 입각하여 統一과 관계되는 統一憲法을 制定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會談으로 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거부로 좌절되고 말았지만 이때의 提議는 다음에 이어질 6共和國時代에도 계속 되풀이 되었다.

이어 제기된 南北體育會談이 있었으나 이 會談은 올림픽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會談이었고 그 戰術은 앞에서 지적한바 있으므로 檢討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會談戰略面에서는 역시 政治的 合作을 실현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때문에 政治·社會的으로 北韓에 대한 남한국민의 對北認識을 전환하기 위해 會談初期에는 적극적인 태도(統一팀구성 합의)를 보이다가도 回數를 거듭하여 實踐的인 문제토의를 기피할 수 없는 段階에 이르면 회담자체를 中斷시키는 戰術을 사용했다는 점만 강조해 두고저 한다.

다. 第6共和國時期 南北對話에서의 北韓側 主張과 戰術

1988年 2月, 第6共和國 출범이후 오늘에 이르는 國內 政治·社會情勢는 北韓의 對南戰略 수행에 일시적으로 유리한 情勢를 조성해 주었다.

與小野大의 政治政局, 「全大協」, 「全民聯」등 조직적이고 과격한 反政府 左翼集團의 등장, 지속적인 勞使紛糾發生, 그리고 感傷的 統一至上主義的 統一方案의 공공연한 提唱 등 말그대로 革命情勢가 고조되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北對話에서 南韓側이 제의한 내용들은 과거의 그것에서 별로 벗어난 것이 없었다. 그 理由가 무엇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동유럽 社會主義國家와 蘇聯에서 전개된 「페레스트로이카」와 이로 인한 國際環境이 변화된 때문이었다.

紙面關係로 국제정세가 北韓에게 준 영향에 대해 再論할 여유가 없었지만 우리 政府의 對北方政策의 성과는 南北韓對話에서 北韓側의 입

장을 弱化시킨 최대의 要因이라 할 것이다.

오늘의 國內外情勢는 분명히 北韓側의 對南戰略 전개에 지극히 不利한 條件을 조성시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攻勢의 입장에서 守勢의 입장으로의 轉換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北韓은 이러한 불리한 情勢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南北對話를 利用하고 있다 할것이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러한 不利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관된 對話論理로 대화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例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南北總理會談과 각종 民間對話를 병행 추진하려는 事實이다.

그들은 既往에 제시했던 對南戰略의 基本原則을 유지하면서 戰術的 變化를 통해 危機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立證해주는 것이 지난 5월 24일 第9期1次 最高人民會議에서 행한 金日成의 「統一을 위한 5個課題」의 제시와 그후 전개한 體育人·音樂人 交流의 실현과 南北總理會談에서의 北側 發言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北韓側의 會談戰略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5個課題」가 對南戰略에서 차지하는 戰術的 意味를 검토해 보자.

먼저 金日成의 現정세에 대한 戰略的 觀點을 지적한다.

金日成은 이 「施政演說」에서 현재의 內外情勢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로 北韓內部情勢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社會主義建設에 北韓住民이 統一·團結하여 치열한 建設鬭爭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社會主義는 한마디로 主體思想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社會主義입니다. …… 主體思想을 구현하여 社會主義를 건설하는 과정은 革命의 主體를 강화하고 社會의 모든 分野를 主體의 요구에 맞게 實現해 나가는 과정, 다시말하여 主體를 철저히 세워나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革命의 主體를 강화하는 것은 社會主義를 위한 鬭爭에서 根本問題로 됩니다. …… 黨과 人民大衆이 서로 의지하여 굳게 統一・團結되어 우리 革命의 강력한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自主・自立・自衛의 튼튼한 기초위에 끊임없이 強化・發展되어 나가는 여기에 우리나라 社會主義制度의 위력과 불패성의 源泉이 있으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環境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社會主義偉業을 끝까지 完成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 》

金日成의 이 말은 北韓의 內部情勢는 외부의 그 어떤 「바람(改革・開放)」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갈수 있다는 自信感을 재천명한 것이라 할수 있으며 이러한 自信感은 그의 統治力으로 보아 결코 허황된 主張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둘째로 南韓에 대한 그의 評價는 역시 過去에 내렸던 평가대로 反美・反政府運動이 계속 고양될 것으로 보고 있다.

金日成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 南朝鮮人民들은 가혹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反美・自主化, 反賣奴民主化, 조국통일의 口號를 높이 들고 民族의 자주성과 나라의 統一을 위한 성스러운 鬭爭에 떨쳐나서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妨害策動은 의연히 계속되고 있지만 統一運動은 全民적 범위에서 날

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

위의 金日成의 評價는 그의 「도그마」적 주장에 비추어 당연히 내려지는 論理的 歸結이지만, 오늘의 南韓情勢를 진실로 이렇게 평가한다면 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負擔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들이 南韓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多元性을 기본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속성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南北關係의 개선이나 南北對話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筆者의 견해는 金日成의 「도그마」적 주장에 비추어 불때 戰術的 입장에서는 南韓의 現事態를 그들에 有利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戰略的 觀點에서는 역시 革命的 낙관주의에 근거하여 革命의 可能性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에서 인용한 南韓情勢의 판단은 그의 信念의 表現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基本的 變化可能性은 속단할 수 없게 된다는데 留意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國際情勢에 관한 그의 判斷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帝國主義者들은 힘의 政策을 전개하면서 이른바 「平和的 移行戰略」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帝國主義者들은 思想・文化的으로 침투하여 人民들의 革命意識을 마비시키고 援助를 미끼로 하여 經濟的으로 매수하며 反社會主義分子들을 부추겨 社會的 混亂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社會主義나라들을 資本主義로 되돌려 세우려하고 있습니다. ……」

위의 글에서 筆者는 동유럽 社會主義國家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革

(改革・開放)에 대한 그의 認識을 분명히 알수 있다고 본다.

동유럽 社會主義國家의 붕괴는 軍事戰略에 의해서가 아니라 文化的 思想的, 經濟的 戰略 — 즉 「平和移行戰略」에 의해 붕괴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資本主義 害毒思想의 침투를 막고 社會主義에 대한 「信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帝國主義와의 鬪爭에서 가장 중요한 課題로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南北交流(人的・物的的交流)에 대한 北韓側의 基本態度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만약 南北交流가 「平和移行戰略」의 進술적 意味를 지니게 된다면 그들은 단호히 거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金日成의 國內외정세에 대한 戰略的 判斷을 근거로 할 때 1990年 이후의 對南戰略은 「防禦的 攻勢戰略」 — 防禦를 위한 平和攻勢의 強化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防禦的 攻勢戰略의 제반 戰術形態로 나타난 것이 바로 「5個統一課題」라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 제시했던 方案들의 수정없이 南韓의 상대적 優位를 상쇄시키기 위한 戰術을 전개할 것이며 形式論理에서 신축성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도 시작한 北韓의 南北總理會談, 축구팀 交換競技, 國樂人의 평양초청, 美國에서의 南北映畫人 접촉, 美國・日本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學者派遣, 「범민족대회」組織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5個統一課題」가 지닌 戰術的 目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첫째, 「平和的 環境의 造成問題」는 美軍撤收 여론의 증대를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反美・自主化鬭爭의 고취를 지향하고 있다.

그들의 論理는 우선 南北韓間에 不可侵宣言을 채택하고, 北韓・美國間에 平和協定을 체결하여 軍縮實現・核武器제거, 그리고 美軍撤收를 기하는 것이 「平和環境造成」이 갖고 있는 意味이고 目標이다.

南北總理會談에서 北韓側이 제시한 不可侵宣言 채택제의는 바로 그 첫 단계에 해당한다.

둘째, 「自由往來와 全面開放問題」는 南北間의 自由往來를 방해하는 콘크리트障壁을 해체하고 接觸과 相逢의 장애로 되는 「惡法」을 폐지함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社會的・法律的 環境造成論理」가 재천명된 것이다.

이것이 目標하는 바는 말할 필요도 없이 南韓內에서 反蔣쇼・民主化鬭爭을 촉진하려는데 있다.

셋째, 「國際的 環境造成問題」는 한국의 北方政策에 대응하는 對西方接近의 명분을 획득하며 당면하게는 우리나라의 유엔加入을 저지하는데 있다.

이러한 그들의 목적은 總理會談에서 제시한 「3大緊急課題」중 하나가 유엔에 加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나 對日國交正常化 提議에서 입증되었다.

넷째 문제인 「全民族的 對話問題」는 이른바 南北政黨・社會團體・個別的 人士와의 政治協商會議 개최를 목표로 한 것으로 당면하게 當局間 會談을 격하시키고 南韓內 左翼勢力의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70년대의 對話戰略의 재천명에 불과하다.

다섯째, 「全民族的 統一戰線의 問題」는 그들의 입장이 防禦的 立場임을 입증한 것으로 統一戰線의 戰略的 運用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反政府·反保守·反美運動을 統一의 명분으로 展開토록 하기 위해 階級的 觀點을 따라 우리나라 국민 각계각층을 統一勢力과 反統一勢力으로 分裂시키자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진행중인 南北對話에서 北韓側이 구사한 對話戰略은 과거 20년간 간헐적으로 지속되었던 그때 그 戰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며 향후 당분간 그대로 온존·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5. 展 望

위에서 1970年代 이후 20년간 間歇的으로 進行되었던 南北對話에서 北韓側 主張을 검토하면서 그것이 지닌 政治的 意味와 對南戰略과의 關係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北韓側은 어떤 이름의 南北對話에서든 하나의 政治的 目標 — 對南戰略의 戰術로서 南北對話를 運用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말대로 南北對話는 「하나의 朝鮮」정책을 지속하며 革命情勢를 고양하기 위한 政治合作 — 광범한 統一戰線의 형성에 궁극적 目的이 두어졌다.

어떻게 하면 3大革命力量 축적을 위해 南北對話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한가지 目標을 위해 對話戰略을 전개했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 모든 對話에서의 北韓의 논리는 政治優先原則에 철저하게 근거하여 計劃되고 實踐되었다.

단지 主·客觀的 情勢의 變化에 따라 다소 伸縮性있는 테도를 보였지만 그것은 對話戰略을 위한 戰術的 次元에 불과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의 南北對話는 대화가 아니라 「鬭爭의 한 形態」라고 할 것이다.

對話場은 바로 투쟁장이며, 때문에 宣傳場·煽動場·思想教育場化 하였다. 이러한 對話에서 어떤 合意를 도출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期待할 수 없는 일이었다. 「7.4 南北共同聲明」 합의이후 北韓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統一3大原則」만 채택하고 그 이하의 모든 條項을 무

시한 처사는 바로 그들의 目標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立證해 주었다.

그들은 南北對話를 國際社會와 南韓社會를 향해 자신들의 주장이 妥當함을 선전하는 手段으로, 北韓住民에게는 남조선혁명의 不可避性을 인식시키고 이른바 統一·團結을 강조하는 思想教育手段으로 이용하였다.

모든 會談에서 그들은 자기들 요구대로 합의하든가, 아니면 會談自體를 정체시키든가 中斷시키는 방법으로 會談의 主導權을 장악하려 노력했다. 그 방법으로 始終一貫 견지했던 對話戰略의 原則은 「先 原則合意, 後 實踐問題討議」라는 것이었다.

赤十字會談에서는 「自由往來原則, 先 社會的·法律的 環境條件의 改善問題」를 제시하였고 體育會談에서는 「先 統一팀구성합의 原則」을, 經濟會談에서는 「統一, 相互尊重, 相互主義原則」을 제시했으며 國會會談에서는 「不可侵宣言 채택」을 고집하였고, 최근에 열린 南北總理會談에서는 「5個課題와 3大緊急問題」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先 原則合意」의 對話戰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主·客觀的 情勢는 이러한 북측의 對話戰略 견지를 점차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1989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東유럽에서의 變革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북한이 과거 40여년간 유지하고 있는 3大革命力量 축적 노선의 根本的 變化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이후 이러한 外部로부터의 壓力은 더욱 증가될 것이 확실하다.

첫째로 北韓內部的 力量蓄積은 경제발전의 沈滯와 스며들고 있는 改

革思想의 전파로 「統一團結」에 미세한 分裂조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筆者의 견해는 이미 1968~69년에 북한 經濟學者와 知識人 사이에서 거론되었던 生産管理體系의 개혁, 나아가 경제체제 改革要求가 再燃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우리식」을 주장하여 東유럽이나 蘇聯式 개혁모델을 拒否한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北韓式의 制限된 경제생산관리체제의 變化는 불가피하다. 그 조직은 獨立採算制 강화(二重獨立採算制 導入)로 나타나고 있다.

獨立採算制를 강화하자면 企業의 自主性を 인정해야 하고 市場制度의 전면적 도입은 아니라도 그 原則의 變容은 불가피하다. 마치 中國에서의 「請負生産制」 導入과 같은 改革 초기단계의 變化가 北韓에서도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런 變化는 對外開放의 가능성을 예측케 한다.

金日成의 말대로 변증법의 「連結의 法則」으로 보아 經濟生産管理部門에서의 조그마한 變化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經濟體制變化, 나아가 社會·政治이데올로기의 변화로 擴大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筆者는 「主體思想에 대한 再解釋」의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 緊要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變化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時期가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면 北韓內 力量蓄積問題는 상대적 意味에서 이미 破綻되었다고 할 것이다. 南北經濟力の 급속한 격차는 北韓指導層으로 하여금 北韓力量의 상대적 劣勢를 인정케 할 것이며 따라서 南北對話에서 防禦的 姿勢를 취하게

만들 것이다.

둘째로 國際的 支援力량의 증대문제이다. 아마도 이 部門에서 北韓은 최대의 危機意識을 느끼고 있으리라 判斷된다.

韓蘇修交, 盧泰愚대통령의 소련방문, 中國과의 貿易事務所의 설치로 北韓의 國際的 支援力량의 축적문제는 완전 파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血盟的 關係에 있던 中·蘇와의 관계가 이처럼 변화했는데 第3世界와의 관계가 변화될 것임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筆者는 北韓의 對日國交正常化 交渉開始는 北方3角關係의 完全 붕괴에 따른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路線轉換의 실증으로 判斷한다.

만약 소련의 고르바초프政權이 붕괴되어 「페레스트로이카」가 中斷되고 保守勢力이 재집권한다면 모를까, 현시점에서 北韓의 選擇은 南方3角關係에 침투하는 길 이외 다른 방도가 없다.

蘇聯은 이미 CSCE(유럽안보협회의)와 비슷한 모양의 CSCA(아시아안보협회의)構想을 발표한 바 있지만 91년 이후 본격적으로 아시아地域 安保問題를 놓고 二者間 또는 多者間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北韓의 立地를 강화시키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北韓은 현재 「하나의 조선」 政策을 「두개의 조선」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한 準備를 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셋째로 南韓內에서의 革命力량의 蓄積展望이다.

1980年代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北韓側은 낙관적 입장에 서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全大協」, 「全民聯」을 비롯한 南韓內 左傾勢力의 노선이 맹동적인 요소도 있고 改良主義的 요소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反美・自主化, 反팃쑤民主化鬪爭」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北韓과의 連帶鬪爭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1989년 東유럽제국에서의 共產黨政權의 붕괴와 이를 계기로 스탈린주의적 社會主義의 本質이 어떤 것임을 우리나라 知識人과 靑年學生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南韓內에서의 社會主義 저항세력의 進路에 戰略的 障礙物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反政府鬪爭과 反資本階級鬪爭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기존의 戰略方針을 修正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統一問題나 南朝鮮革命問題를 공히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革命」을 수행할 때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더이상 進展될 수 없는 狀況에 처했다고 할 것이다.

現時點에서는 反政府鬪爭과 反資本階級鬪爭간의 우선순위, 反美・自主化鬪爭과 反팃쑤民主化鬪爭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당분간 기존의 戰略方針을 계속 견지하려 하겠지만 反美・反日鬪爭의 동시 제시에서 反日이 소멸될 수 밖에 없는 時點(日本과의 國交正常化교섭 필요에서)에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향후 周邊情勢의 변화에 따라 反美주장도 약화될 可能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變化를 예측할때 北韓의 南朝鮮情勢의 평가는 점차 변화될 수 밖에 없으며 革命力量構築의 「長期성과 艱苦性」을 더욱 실감케 될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의 입장에 서서 조성된 主・客觀的 情勢를 종합검토

할때 北韓側은 기존의 3大革命力량의 구축이라는 戰略方針을 修正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問題는 이러한 戰略的 修正이 언제, 어떤 형태로 표면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筆者는 北韓의 기존전략의 修正은 體制改革의 實施與否에서 드러날 것이며 그 時期는 中期的・長期的 時間經過를 거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당장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無理한 일이며 특히 主體思想의 象徴인 金日成이 生存하는 이상 더딜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서히 그 徵候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南北對話는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南北對話를 전망한다면 北韓의 戰略은 단기적으로는(향후 2~3년간) 종전의 對話戰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른바 「反美・自主化, 反팍쑈民主化鬭爭」을 위한 선전선동의 場所로 이용한다는데 큰 變化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北韓側은 종전의 對話戰略 — 先 原則合意 또는 一括妥結原則을 고수하며 名分爭取에 주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측의 對話戰略이 「實踐的 問題의 先合意」에 대해서 응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이러한 對話에서는 統一戰略 形成에 유리한 議題選定을 제기하고 고집할 것이다.

統一戰線의 궁극적인 目標은 南韓內에서 分裂, 對立, 鬭爭을 유발시키는 것이므로 上層統一戰線과 下層統一戰線 形成에 다같이 유리한 의

제를 提示하겠지만 우리나라 政治現實로 보아 上層統一戰線 형성에 유리한 議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1년 가을이후에는 본격적인 政治季節 — 國會議員選舉, 大統領選舉準備 — 로 들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효험을 볼수 있는 議題討議를 고집할 것이다.

이런 前提下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各種對話에 대해 展望해 본다.

가. 南北當局間會談

周邊情勢의 변화와 南北間狀況 — 軍縮問題의 제기 가능한 狀況 — 을 고려할때 약간의 迂餘曲折은 있을 것이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對日·對美接近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日本과의 國交正常化 交渉을 시작한 現時點에서 南北當局間 會談의 중단은 北韓의 對日, 對美關係改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南韓政界의 취약성을 이용하는데 南北當局間會談의 지속이 유리하다. 在野는 물론, 制度圈內 與·野간의 統一政策의 차이가 노정되었고 심지어 與黨內에서조차 統一政策의 異見이 노정되고 있다는 事實을 北韓側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6月號 「國際生活」(평양발행)에 金泳三 代表委員에 대한 혹독한 비판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은 北韓의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民正·民主·共和 3系派간에 統一政策에 대한 合意, 특히 지금 北韓側이 제시한 不可侵宣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의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의 對北政策은 矛盾性과 二重性을 계속 띠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항상 保守·進歩, 與·野사이

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한다면 南北當局間會談에서 北韓側이 政治·軍事問題討議를 계속 고집한다 해도 會談持續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北韓側이 當局間會談 — 高位會談이든 下位會談이든, 本會談이든 實務接觸이든간에 — 政治·軍事問題 優先討議를 固守하려 할 것이다.

나. 南北赤十字會談

北韓側이 가장 不願하는 會談이 바로 離散家族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人道的인 赤十字會談일 것이다.

이 회담으로 北韓側이 얻을 이득은 現時點에서 거의 없다. 이 會談이야말로 東유럽 社會主義諸國의 붕괴를 가져온 西方國家의 「平和移行戰略」의 대표적인 形態로 볼 것이다.

體育交流·文化交流 등 代表團을 서로 交流할 경우 北韓은 충분한 統制能力을 보유하고 있다. 南韓 代表와 隨行員을 1 : 1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離散家族의 경우는 이러한 外形的 통제와 감시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血肉간의 만남은 얘기를 주고 받지 않아도 서로 상대방의 立場을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손목만 잡아도 상대방의 얼굴만 보아도 그 內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다.

離散家族의 교류야말로 北韓內部的 자본주의적 害毒思想과 文化的

流入의 길을 여는 것이다. 때문에 赤十字會談에서의 실질적인 討議는 뒤로 미루고 종전과 같이 本末을 顛倒한 형태로 운영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赤十字會談에서도 「社會的·法律的 環境改善과 自由往來原則」은 단골 메뉴가 될 것이다.

實質的인 會談進展이 가장 難望視되는 회담이 赤十字會談임을 지적해 둔다.

다. 體育會談

'92 바르셀로나 올림픽문제를 비롯하여 매년 各國에서 진행되는 종목별 國際競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제나 開催可能的 會談이 바로 體育會談이다. 이미 체육회담을 통해 南北間의 축구팀교환경기를 成事시킨 일이 있으므로 체육회담의 開催可能性은 대단히 높다.

한편 이 회담은 필요에 따라 언제나 中斷시킬 수도 있다. 議題를 「단일팀 구성합의 우선원칙」을 고수하거나 남한의 적대적 행위를 든다면 필요할 때 얼마든지 中斷시킬 수가 있다.

그런가하면 이 原則을 포기함이 없어도 種目別 體育會談을 개최할 경우에도 남북간의 體育人交流는 얼마든지 成事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성과를 낼수 있는 회담이 體育會談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北韓이 모든 종류의 體育交流를 실현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祖國統一」의 열기를 일거에 高揚할 수 있는 경기, 수만의 대

流가 「平和移行戰略」에 의한 否定的 結果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있다.

89년 林秀卿양의 平壤訪問이 정치적으로나 對南戰略上 유익한 結果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 사소한 일이지만 북한 靑少年들에게 미친 영향도 있다. 예를 들면 林秀卿양이 「위대한 수령의 교시」를 끝까지 거부하고 板門店을 통해 歸京했다는 사실이라든가, 「주체사상」에 입각한 統一方案에 異議를 제기했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그들에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南韓의 知識人들이나 大學生들의 대거 訪北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금년도 總理會談이나 蹴球競技, 「汎民族音樂祭」에 수행했던 記者들이 쓴 記事는 한국 知識人들의 北韓에 대한 觀點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이런 意味에서 수백, 수천명의 人員이 交流하는 問題는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民間交流를 위한 회담이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보다 制限된 人員의 必要的 交流(祝祭日, 記念日 등을 기해)를 위한 會談提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상이 戰略的 觀點에서 본 北韓의 短期 對話展望에 대한 筆者의 견해이다.

한마디로 말해 앞으로의 對話展望은 과거보다는 훨씬 밝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對話가 어떤 成果를 낳기에는 周邊情勢나 南北關係가 아직 未熟한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측이 時間을 갖고 對話에 임해도 큰 손실이 없

을 것이다. 對話自體보다 對話가 초래할 영향이 政府의 立場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도록 對國民 弘報活動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時期라고 여겨 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側이 留意해야 할 몇가지 문제를 지적해 둔다.
가. 對話擔當者(代表 또는 部署)

- ① 우리측 提案 및 發言에서의 철저한 一貫性 유지
- ② 代表 또는 수행원들의 「南北對話史」에 대한 研究(과거의 쌍방발언에 대한 熟知)
- ③ 每 會談에서의 북측 企圖와 戰術의 신속한 把握
- ④ 對北提案의 「時期選擇」의 심사숙고
- ⑤ 對北提案시 實定法과의 關係 고려
- ⑥ 會談場 「안」과 「밖」에서의 二重作戰의 전개 (이를 위한 수행기자와의 긴밀한 협조 및 사전교육실시)
- ⑦ 每 會談의 「끝마무리」(會談結果에 대한 정확한 發表, 本質的 見解차이의 明示)의 철저

나. 政府의 一般對策

- ① 與・野間의 統一方案 또는 統一過程(프로세스)에 대한 合意 導出
- ② 계속적인 親北, 좌경세력에 대한 對抗論理의 개발과 전파
- ③ 美日 兩國의 對北接近과 南北對話進展간의 速度 調節
- ④ 安保, 統一, 外交政策에서의 二重性 克服論理의 開發과 弘報強化

중이 동시에 참관할 수 있는 競技의 交流를 원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屋外競技, 특히 蹴球競技가 가장 적합하다.

南北體育會談의 개최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특히 多數參觀者를 운집시킬 수 있는 경기이면서 北韓側이 우세하거나 비슷한 實力을 갖고 있는 경기종목별 南北體育會談을 간헐적으로 제의할 것이다.

라. 南北經濟會談

南北이 공히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회담이 經濟會談이다. 그런데 문제는 北韓側의 體面과 名分이 문제이다. 소련의 對韓關係改善을 「몇 푼의 달러에 兄弟國과의 義理를 팔았다」고 비난했던 그들임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南北간의 經濟會談 實現可能性은 北韓의 對日關係改善 問題와 직결되고 있다. 아마도 北韓은 회담에서 남북간의 合作·交流를 실현하기보다 회담을 통하지 않고 通商·交流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더 크며 이것은 현재도 進行中에 있다.

따라서 南北經濟會談의 개최문제에 熱意를 보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만약 南北經濟會談을 개최한다 하더라도 「① 統一에 기여하고 ② 相互尊重하며 ③ 相互主義原則에 입각해야 한다」는 종래 會談原則을 앞세우면서 회담의 成果보다 경제인들과의 統一戰線 형성에 주력하는 政治優先을 강조하게 될 것이므로 成果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마. 南北國會會談

政治的 合作 실현에 가장 가까운 회담이라는 점에서 協商會議式 南北國會會談 提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政府와 與黨을 소외시킨다는 側面에서 特定政治人을 거명한 會談을 제기할 可能性도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議題이다. 「分斷固着化」, 「聯邦制案의 褪色化」를 겨냥한 議題選擇을 우리측이 제기할 경우 會談進展은 없을 것이다.

筆者의 見解는 이런 회담의 필요성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北韓側의 입장에서는 特定政治人의 訪北招請으로 이러한 目的은 언제나 달성될 수 있다. 南北間의 교류에 관한 法律이나 政治狀況으로 보아 政治人의 訪北申請을 정부가 拒否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입장이다.

現 南韓의 政治現實(선거계절 압박)로 보아 조만간 與·野 政治人中 北韓訪問을 自請할 사람들이 출현할 것이며 北韓은 이러한 自請者에 대해 選別的인 受諾을 통해 政界의 分裂·對立을 심화시키려 할 것이다.

바. 其他 會談

현재 南韓側에서 제기한 각종 會談(학술, 문화·예술, 노동, 종교, 언론계 등의 대화) 提議가 산적해 있다.

北韓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提議를 거부한 일이 없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언제나 現實化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交

- ⑤ 政府 高位政策담당자들의 豫測的 樂觀的 견해 發言의 절제
- ⑥ 政府 또는 與黨內 對北政策을 위한 功名競爭의 止揚
- ⑦ 政府 各 機關間의 철저한 業務協調
- ⑧ 南北對話의 전반전 指導의 統一院 集中